



제302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중대재해법 '자율 예방'으로 선회 3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 8

코스피(30일)	2472.53 (+39.14P)	코스닥	729.54 (+2.00P)
환율(달러당 원화)	1318.80 (-7.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689% (-0.034%p)

## 勞-政 2차 협상도 결렬 물류대란·파업 장기화

교섭 40분 만에 파행

정부 "피해 막심...복귀해 달라"  
노조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안전운임 등 기존 입장 되풀이  
강대강 대치 속 사태 해결 난망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7일째인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가 다시 만났지만, 40분 동안 원론적인 얘기만 주고받다가 빈손으로 헤어졌다. 정부에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 측이 모두 지난달 28일 열렸던 1차 대화 때(자관-부위원장)보다 낮은 급이 참석하면서 애초부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4·5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대화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복귀를 요청했고,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면담 시작 10여 분 후부터 고성어 터져 나왔다. 결국 40분 만에 구 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밝히며 협상이 종료됐다. 구 정책관은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를 해야 할 곳은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다음 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하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삼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운송거부가 7일 차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화물 파업으로... 휘발유 품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21곳의 주유소가 휘발유-경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 남았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파업·경제위기 땀 與野 협치... 美는 달랐다

'수송 30%' 철도 파업 예고에  
바이든 "파업 막아달라" 요청  
철도노조 중재법안 처리 예정

미국 정치가 '협치'의 정석을 보여줬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9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정부 정책과 운영 방식을 두고 으르렁거리면서도 국가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여야 상·하원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의회가 개입해 철도노조 파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개입은 쉽지

않은 요청"이라면서도 "노사 분쟁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회에 손을 내민 것이다.

미국 전체 화물 수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한다. 철도 파업은 가격이나 살벌한 물가를 더 치솟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파업 첫 주 경제손실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 위기 앞에 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에 "노조의 파업권을 거스르고 싶지 않지만, 중요성을 따지면 이번 파업

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크널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상·하원은 노조가 잠정 중재안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9월 철도 노사는 바이든 정부의 중재로 5년간(2020~2024년) 임금을 24% 인상하고 1만1000달러 보너스를 즉시 지급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총 12개 철도 노조 중 4곳이 유급병가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친노조' 성향의 바이든이 강력 지지층 이탈 우려에도 경제 초토화를 막기 위해 의회 개입을 촉구했고, 여야는 초당적으로 힘을 보탰다.

김서영 기자 0jung2@

##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컨트롤타워 신설

임원인사... 사장에 동커볼케



미주 지역 생산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경험한 재무, 해외판매 기반 전략기획 전문가로서 수익성 중심 해외 권역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을 담당해 왔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그룹 핵심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GSO(Global Strategy Office)를 신설하기로 했다. GSO의 각 부문 인사와 세부 역할은 12월 중 결정한다. GSO는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분야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의 미래 전략 방향 수립 및 대내외 협업, 사업화 검증을 담당한다.

전략기획담당 공영은 사장, 이노베이션 담당 지영조 사장,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김정훈 사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을 맡는다. 이만재 기자 2mj@

현대자동차그룹이 30일 최고창조책임자(CCO) 루크 동커볼케(사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2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과 기반의 핵심 인재의 발탁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9면

현대차그룹 CCO 동커볼케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동커볼케 사장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지향점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룹 내 주요 신사업 분야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의 이동수단과 연계한 고객 경험 디자인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의 '재무통'으로 꼽히는 프로세스 혁신사업부의 이규복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이 부사장은 유럽 지역 판매법안장 및

## 산업생산 4개월째 감소... 실물경기 한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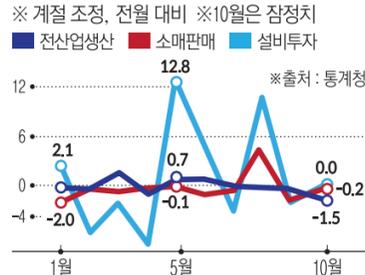
10월 산업생산 1.5% 뒷걸음질  
제조업 3.5%↓...車·반도체 부진

10월 생산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4(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4달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생산이 4개월째 감소한 것도 2020년 1~5월에 5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산업활동증감 추이 (단위: %)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5% 줄면서 2020년 5월(-7.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승용차, 대형버스 등 완성차 생산이 줄어 자동차가 7.3% 줄었다. 반도체 조립장비, 웨이퍼 가공장비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기계장비가 7.9%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감소했고,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7%포인트(p) 하락한 72.4%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8% 줄었

다.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0.3%)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금융·보험(-1.4%), 정보통신(-2.2%)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20.4(2015년=100)로 0.2% 감소했다. 소비는 3월(-0.7%)부터 7월(-0.4%)까지 5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8월에는 증가로 전환했고, 9월과 10월에는 다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보합(0.0%) 흐름을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3.9%) 및 토목(3.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3.8% 증가했다. 다만 국내의 경기둔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요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전월과 같았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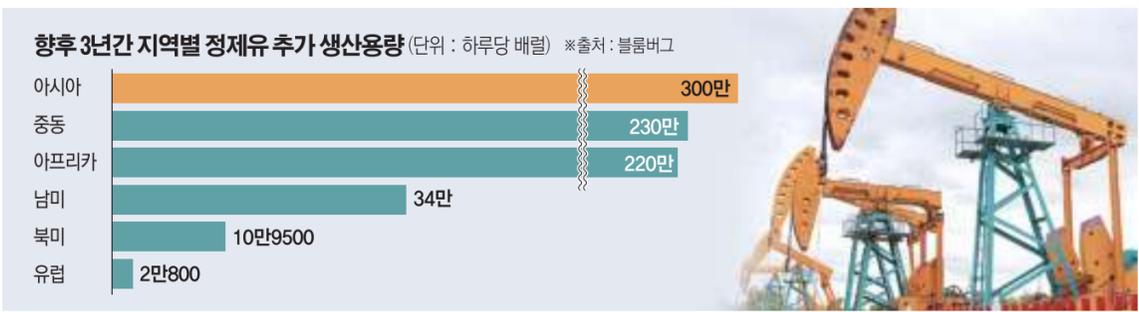
# 푸틴이 분탕질한 '에너지 패권' 중동·亞로 흘렀다

### 서구권, 리 없는 새 질서 모색 獨, 카타르와 LNG 수입 계약 亞, 정유시장서도 영향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유럽이 '탈러시아'에 착수했다. 에너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빈자리를 중동과 아시아가 꿰차고 나섰다.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영향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와 미국 에너지기업 코노코필립스는 2026년부터 15년간 연간 2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일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코노코필립스는 카타르에서 공급받은 LNG를 독일 북해와 합류하는 엘베강 연안의 항구도시 브룬스뷔텔로 운반, 독일에 공급하게 된다.

카타르가 독일에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에 내몰린



독일이 3월부터 카타르와 협상을 벌인 끝에 이룬 성과다. 공급 규모는 독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독일 전체 천연가스 소비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55%에 달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계약은 독일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가치를 부여했다.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카타르에도 이번 계약의 의미가 작지 않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2027년까지 LNG 생산을 60% 늘려 시장점유율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

동안 카타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에 몰려 있었는데 유럽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드 빈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독일로의 LNG 수출에 한도는 없다"며 "독일 에너지 기업 유니퍼, RWE와도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에너지는 최근 중국 국영 석유기업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과도 27년간 연간 400만 톤 규모의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NG 거래 역사상 최장기 공급이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정유산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을 줄이는 대신 아시아와 중동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다. 서구권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석유 사용 급감에 대응해 정제 시설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왔다. 최근 3년간 서구 국가들의 정제유 생산량은 하루 240만 배럴 감소한 반면 중동과 아시아는 250만 배럴 늘었다. 중국이 자국 내 수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첨단 정유 시설 투자를 계속했고,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도 거대 정유 공장을 계속 지었다.

또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에너지 대란을 부채질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유럽의

경유 재고는 계속 줄어 내년 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 결과 서방의 아시아와 중동 의존도는 더 커졌다. 유진 린 텔 FGE 대표는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등을 돌리면서 중동과 아시아에서 장거리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당장 치솟은 에너지 요금과 인플레이션에 치중하다 보니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벽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유조선이 이용한 석유 제품의 해상 운송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 증가했다. 유럽의 아시아와 중동산 경유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시아와 중동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아시아와 중동은 기세를 몰아 더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아시아는 정제유 생산능력을 하루 300만 배럴, 중동은 230만 배럴씩 더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타드에너지의 무케시 사데브 애널리스트는 "아시아와 중동이 점점 세계 에너지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정유제품의 동-서 간 수출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러 원유 제재 앞두고, OPEC+ '추가 감산' 전망

### 골드만, 내년 유가 110달러 전망 중국 시위로 수요 위축 불안 고조 "산유국, 원유 생산 줄일 가능성 ↑"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이달 정례회의에서 원유감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요청에 부응해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중국 불안 여파로 유가가 계속 하락하자 감산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부문 대표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골드만삭스의 카본노믹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OPEC+가 4월 열리는 회의에서 감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내년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약 14만 5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산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OPEC+는 10월 초 회의에서 11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통신도 관계자를 인용해 OPEC+가 이달 회의에서 기존 감산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도 사우디 국영 통신사인 SPA에 "원유 감산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며 "OPEC+는 내년까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OPEC+가 하루 최대 50만 배럴 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기치 암살 사건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할 것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단위: 배럴당 달러, 현지시간 기준)



대한 화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최근 1개월간 약 12% 하락했다. 브렌트유 하락폭

도 11%에 달했다. 커리 대표는 "유가 불안은 키우는 요소들이 중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둘러싼 중국 내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 하락 압박을 키웠다.

커리 대표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봉쇄를 유지하는 게 OPEC+의 감산 결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원유 수요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OPEC+는 중국의 추가적인 수요 약세를 수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예정된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도 향후 유가 변동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민 기자 oin@

#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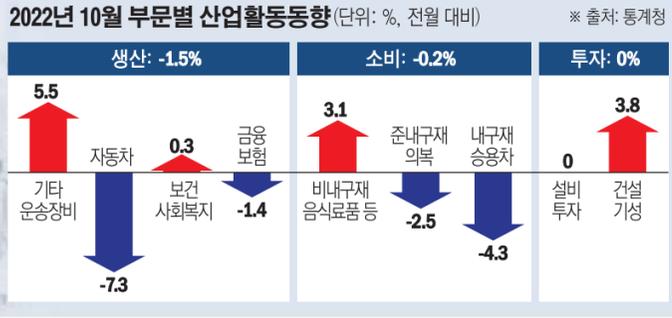
# ‘재고’ 얹친 데 ‘파업’ 덮친 韓경제… “코로나 이후 최악”

##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주력 수출품 반도체·자동차 부진  
전세계 경기둔화에 내수도 막혀  
생산 뒷걸음에 화물파업 겹박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내수 부진도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10월 기준으로 광공업과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으로 되돌아갔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 부진에 자동차 생산과 소비도 주춤했다.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악재들로 인해 11월 경기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5%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2020년 5월(-



7.3%)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월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중국 수출 악화 등으로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제조업 생산도 함께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경승용차, 대형버스 등 완성차 생산이 줄어 7.3% 감소했고, 기계장비도 반도체 조립 장비, 웨이퍼 가공 장비 생산 등이 감소해 7.9% 줄었다.

소비에서는 승용차 판매지수도 7.8% 감소했다. 통계청은 9월 국산차 및 수입차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

고 설명했다. 9월 승용차 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9.6%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내수판매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1년 전보다 각각 23.7%, 20.4%씩 증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차종이 생산 중단돼 있었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좋았던 레저용 차량(RV) 승용차도 생산이 둔화하면서 완성차, 부품 생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지엠(GM)의 경차 스파크와 말리부, 트랙스 등은 9월 단종돼

생산이 중단됐다. 다만, 자동차 생산은 최근 별다른 악재가 없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자동차에 이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9% 늘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그동안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해왔던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반도체 생산은 7월(3.5%)부터 8월(12.8%), 9월(4.5%)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운선 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이 소폭 증가로 돌아섰는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상대적

반등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 봉쇄 조치에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정보기술(IT) 수요도 줄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내놓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은 국내의 수요 둔화로 4.9% 감소하고, 수출도 올해 증가(1.6%)에서 큰 폭의 감소(-9.9%)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7% 포인트(p) 하락한 72.4%로 나타났다. 생산 능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불확실하다 보니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감소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운선 심의관은 “재고 감소는 반도체 재고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며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요가 둔화돼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재고가 쌓였는데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가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 감축, 규제만으론 한계 사후처벌 대신 자율예방으로 선회”

### 고용부, 법 개정 로드맵 발표

위험성 평가로 사전예방 확립  
산재사망 OECD 평균이 목표  
중기 취약부문 안전관리 지원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 (퍼밀리아드)인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을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그간의 경영 관행은 여전하고, 근로자도 스스로 안전보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자립적인 안전행동,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의 정례기에 직면했던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다수의 입법을 통한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다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추가 규제로만 인식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B 금융그룹 | 금융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글로벌 진출

세상을 바꾸는 금융

**BRAVE**  
[용감하게]  
금융플랫폼 KB Pay

**INSIGHT**  
[통찰력있게]  
미래를 위한 글로벌 진출

**GREAT**  
[위대하게]  
ESG경영 실천

**KB Pay**

카드를 넘어 금융플랫폼으로

**BIG MOVEMENT**

본업공시된 실적 등 제225805-02589-ADP2022.8.5 기준

KB 국민카드

# 철강 7800억 매출 손실... 전국 주유소 23곳 기름 동나

## 산업계 추산 피해 1兆 이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사료 등 주요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강업계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체들은 물류 차질로 전날까지 60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약 78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출하 못한 철강 제품만 60만톤 석화업계 매일 680억 피해 발생

화물연대 가입률 높은 탱크로리 파업 장기화 땀 '기름대란' 우려

무역협회 접수된 애로신고 70건 납품 지연에 해외거래 단절 최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하루 평균 출하량 7만4000톤 가운데 30% 수준만 반출 중이다. 이에 따라 매일 6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재 누적 1300억 원을 넘어섰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각 공장별로 언제 공정들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수출입물류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허대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 불황으로) 이미 가동률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더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공장을 다 꺼야 하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피해도 급속히 확산하면서 기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평균 70%에 이른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가입률이 90%에 달한다.

대한석유협회는 거래처별로 사전 주문이나 재고 비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석유제품 수급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품질 사태가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질 주유소는 23곳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가 품질된 주유소가 22개소, 경유 품질이 1개소로 집계됐다. 서울 1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 등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주유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고 탱크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도 더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고 부족 현상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파업이 더 길어지면 기름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기름 대란 우려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별로 재고가 떨어지는 곳은 있지만, 정유사별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에 우선 공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요소수 사태처럼 아예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기름 대란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오전 8시까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41개 업체에서 70건의 애로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처 단절이 32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비 증가 20건(29%), 원·부자재 반입 차질로 생산 중단 16건(23%),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 2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발목 잡힌 산업현장 대한민국이 멈췄다

車, 신차 로드 탁송 임시대용 타이어, 재고물량으로 버티기 철강, 공장가동 중단 가능성 조선마저 파업 '엎친데 덮쳐'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산업의 모세혈관인 물류가 멈추면서 각 산업계의 영향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로 7일째를 맞는 가운데 시멘트, 레미콘, 타이어, 철강업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곳곳에서 출하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긴급 물량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경험을 토대로 업체들이 미리 제품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시행해 현재로서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일주일일이 고비라는 관측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임직원 수백 명을 투입한 신차 로드 탁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로드 탁송이란 생산 공장부터 고객 출고센터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카 캐리어로 불리는 탁송 차량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까닭이다.

타이어업계도 여전히 제품 운송에 차질을 겪는 중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이날 입출고율을 평소의 40~50%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호타이어는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는 신차용 긴급 출하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출하가 여전히 막혀 물류창고에 미리 옮겨둔 재고로 버티고 있다. 제조사에서 유통업체 물류센터로 운송되는 상품도 파업 영향으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출하 차질이 이어

져 평일 출하량이 종전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포스코 측은 파업 영향으로 현재 육로운송은 중단된 상황이다. 포항제철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설비자재의 입출고 운송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지속 요청 중인 한편 복구용 자재는 현재 들어오고 있다. 육송 출하 지연 물량이 하루 평균 포항제철소 1만 톤, 광양제철소 1만700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5만 톤의 철강재를 출하했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옛새째 출하길이 막혔다.

철강재가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고 공장에 쌓이면서 공장 내부에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자칫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아직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포항공장에서는 하루 8000톤가량이 출하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출하 차질로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 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선사 노조까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은 7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조선업계에서는 아직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기화 시 선박 건조 납기일을 맞추기 버거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민재 기자 2mj@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물류 업체를 현장방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둔촌주공, 닷새째 타설 중단... 파업 지속 땀 내주 '셋다운'

골조공사 차질에 실내설비 작업 대체 공정 일거리 3~4일분 남아

원희룡 장관, 현장피해 상황 점검 "운송업계, 조속한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건설현장 공사중단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공사의 핵심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굳지 않은 콘크리트)과 철근 운송이 끊기면서다. 당장 분양을 앞둔 1만 2032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닷새째 골조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부터는 공사가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건설 현장 사무소를 찾아 레미콘 공급 중단 관련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내 최대 규모 공급 예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자 장관까지 직접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직접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기계가 방치돼 있다.

최고 35층 가운데 18층에서 24층까지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공사 현장엔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 진행돼야 함에도, 실내 설비 공사만 진행 중이었다.

원 장관은 이날 302동 건물 2층 내 한 가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밑 층부터 다른(설비) 작업을 먼저 하고 있지만, 작업을 둘러서 할 수 있는 양은 적고, 골조 공사가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공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21개 동 가운데 9개 동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고 대기 중이다. 다른 골조공사를 이어가는 12개 동 역시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는 일거리

는 3~4일 분량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시공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대량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는 왕용건설 이안규 대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추면 근로자들은 그냥 쉬어야 하고, 이들의 임금 보전 등 피해는 모두 고용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보고받은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약속하고, 시멘트 공급 재개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건설근로자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도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며 "오늘도 많은 운송자가 시멘트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일까지 명령서가 차질 없이 송달된다면 물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건설현장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운송사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용욱 기자 dragon@

# 정유차 ‘업무 명령’도 검토... 군용 탱크로리 긴급 투입

**정부 ‘휘발유 품질대란’에 대응  
산업부 장관 ‘품질’ 주유소 찾아  
“서민 불편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지도앱에 주유소 재고 반영 예정**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한다. 이른바 ‘휘발유 품질 대란’ 등 석유 부족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필요 시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제품 수송을 위해 군용, 수협 보유 탱크로리 총 18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품질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과 긴급수송 체계 가동현황 등을 살폈다. 이 장관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 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휘발유가 품질된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품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5대), 수

협 보유 탱크로리(13대)를 12월 1일부터 긴급 투입하기로 했고 추가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7일차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경유가 품질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품질 주유소는 총 23곳(휘발유 22곳, 경유 1곳)이며 서울 15곳, 경기 3곳, 인천 2곳, 충남 3곳에서 품질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11월 24일부터 정유업계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 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는 품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픈넷(opinet.co.kr)에서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세종=박준상 기자 joooon@

## “1월 셋째 주가 전력 피크...신규 원전 최대한 활용”

**산업부, 겨울 전력수급 점검  
에너지 위기 속 LNG 가격 폭등  
“신한을 적기 가동...공급 안정화”**

정부가 이번 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력수요 피크시기는 1월 셋째주로 예상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월성원자력본부 전력

유관기관 대표단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 전력수요 피크 시기를 1월 셋째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94.0GW로 예상했다. 지난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90.7GW였다. 전력 공급능력은 신규원전인 신한울 1호기 등으로 전년 대비 5.5GW 증가한 109.0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수요증가, 산불 등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 LNG 가격 폭등이 무역적자와 한

전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 악화에 영향을 주면서 국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어 신규 원전 적기 진입, 정비일정 최적화 등으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운전 발전기 활용,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최대 9.8GW의 예비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 급증에도 대비한다.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유연탄·LNG 등의 필요물량은 조기에 확보했지

만, 필요 시 추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수급 및 LNG 등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을 고려해 석탄발전 출력제한(80%)은 올겨울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발전연료 도입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병립 기자 riby@

## ‘세종대왕’ 돌아왔다... 만원권 환수율 1141% ‘역대 2위’

**10월 595억 발행·6794억 환수  
추석 전후 풀렸던 돈 들어오고  
금리인상으로 예금·적금 폭증**

1만 원권 화폐 환수율이 1000%를 돌파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5만 원권 환수율도 280%를 넘어서며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고액권 화폐(돈) 흐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중 만원권 발행액은 595억4100만 원을, 환수액은 6793억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돈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환수율은 1141.05%를 보였다. 이는



역대 최대 환수율을 기록했던 2017년 10월(1397.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5만 원권 환수율도 280.75%(발행액

5666억6900만 원, 환수액 1조5909억 300만 원)로 2019년 2월(371.03%)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환수율을 보면 만

원권은 114.36%, 5만 원권은 39.04%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각각 2010년(118.37%)과 2019년(64.76%)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기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환수율을 보면 만 원권은 70.52%(2020년), 5만 원권은 17.75%(2021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명절로 풀렸던 돈이 이후 회수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만 원권 수급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대체해 만 원권 발행이 많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이 5만 원권 추가 발주에 나서면서 수급 어려움이 해소되자 만 원권을 중심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이다.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소비활동이 증가한 것도

현금 사용량 및 환수율 증가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현금보유 기회비용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예·적금 등이 늘자 시중은행 시세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한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실제, 9월 기준 예금은행 정기 예·적금 잔액은 각각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909조4400억 원)과 40조 원(41조 1618억 원)을 돌파했다.

정복용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위축됐던 수요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숫자(환수율)가 튼 실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환수율도) 예년수준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현 경제전문기자 kimnh21c@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조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공청회 진행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심사 청신호

**여야 의원 모두 공청회 진행 동의  
이견 조율 가능성 ↑ ... 시기 이전**

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물론 지난해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됐던 법까지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고, 정부 관계자는 각 법안에 따라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논의를 통해 여야 의원이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공청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시작점과 같아서 법안 계류보단 심사에 청신호가 켜

진 셈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 계속운전을 포함할지와 재처리 기술 포함, 기간 명시 등 여러 쟁점이 있다. 여야 의원들이 쟁점과 별개로 논의를 위한 공청회 자체는 필요하다고 합의하면서 이견 조율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법을 제출한 이인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법안이 때

문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2일에 법안 토의를 한 번 더 열면 공청회를 약식으로 소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의 기대와 달리 공청회는 2일에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진행 자체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청회 진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여당과 정부는 당장이라도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n@

# '카카오 대란' 후 두달... 정쟁에 밀린 '플랫폼 갑질 방지법'

### 화재 이후 '온플법안' 4건 발의 예산안·국정조사 대치 국면에 기존 8개 법안 논의도 '미지수'

10월 발생한 '카카오 대란' 이후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이후 새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총 4건에 달한다.

카카오 대란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관련 법안들을 여럿 발의

한 것이다.

그 전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카카오 대란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뿐만 아니라 기존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속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최소 규범은 일단 만들고 추가로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누는 것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한 건 없다"며 "그나마 개별적인 의견 교환 정도만 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법을 제정하는 문제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는 게 필요한데 정쟁에 묻혀서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선 데 닿진 격으로 최근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 간 대

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애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앞으로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온플법 처리도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 대란 이후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으며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박홍근(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발의 "거부땀 탄핵안...반드시 문책"

### 박홍근 "이번 주 본회의서 처리 자진사퇴 마지막 기회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4시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보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

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이 장관의 자진 사퇴와 해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여지도 내비쳤지만, 기존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계획도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이 장관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 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hu 휴온스**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 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 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30일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만 참여해 거수로 법안을 상정했다.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폭력·파괴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

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주노총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달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arth with Us♥

# 우리에게도 스윗 지구에게도 쏘-스윗

지구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  
Earth with Us(어스윗어스)캠페인

우리 모두의 실천이 계속되어  
세상 스윗한 지구가 되는 그날까지  
SK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네옴시티’ 앞두고... ‘모빌리티 솔루션’ 이끈 지영조 용퇴

〈전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 현대차그룹 임원인사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짜낸 지영조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이 물러났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구상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앞둔 가운데 이례적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0일 현대차그룹은 최고경영자(CEO)인 루크 동커블게 부사장의 사장 승진 등 일부 계열사의 사장과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다. 동커블게 사장은 주요 신사업 분야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 이동수단과 연계한 고객 경험 디자인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브랜드 정체성 강화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벌 대표이사에

지 전 사장, 작년부터 입지 축소 대형 프로젝트 전 이례적 인사

글로벌 대표에 이규복 부사장 미래사업 중심 구조 개편 속도

현대차 프로세스혁신사업부의 이규복 전 부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된 점도 눈에 띄어 주목된다. 그룹에서 미래사업을 맡았던 이 신임 부사장이 수소와 스마트 물류, 로보틱스 등 다양한 미래사업을 추진 중인 현대글로벌 수장을 맡게 돼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추진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고 관측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1959년



지영조 전 사장

이규복 부사장

생인 그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사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전략기술본부를 만들고 주도해 왔다.

삼성전자에서 기획팀장 부사장을 지낸 그는 2017년 현대차 전략기술본부장으로 영입돼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국내외 다양

한 기업들과 협력을 끌어냈다. 동시에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얻 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 전략기술본 부를 꾸리면서 국내외 각 기업의 기술 전 문가는 물론 회계·법무법인, IB 인력을 총 원하며 1년 만에 200명이 넘는 대형 조직 을 키워냈다. 기술력이 뛰어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정 회장이 이들을 통해 직접 사업에 관여하 기 도 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그룹 안에서 지 사장이 이끄는 전략기술본부의 입지가 다 소 좁아졌다. 2020년 미국 CES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전략을 공개한 이후 그의 역할론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었다. 지난해 4월 그룹 신사 업 추진을 맡아온 전략기술본부가 ‘이노베

이션 담당’으로 바뀌면서 이런 관측에 설 득력을 더했다. 전략기술본부가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을 새롭게 구성한 ‘TaaS본 부’에 맡긴 점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함께 주목받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앞 둔 시점에서 이번 인사는 정 회장의 용단 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 전환을 가속하 고자 컨트롤타워 조직인 ‘글로벌 전략 오피 스’(GSO)를 신설하기로 했다. GSO 부문 별 인사와 세부 역할은 12월 중 결정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장단의 역할과 인사 배치는 그룹의 방향성이 담겨있 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 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플로어’ 첫선

LG디스플레이가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매장 바닥에 설치해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신개념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그룹 계열사 SM브랜드마케팅의 신규 플래그십스토어 ‘광야@서울’에 투명 OLED 플로어 솔루션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야@서울을 방문한 고객이 ‘투명 OLED 플로어 솔루션’을 경험하고 있다.

사천제공 LG디스플레이

## 삼성 반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한다

### 환경부·지자체 등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30일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 등 5개 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라 2030년께 사업장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국내 사업장의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밝힌 삼성전자

는 취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용인·화성·오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사업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 수준으로 처리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에서 공급받게 된다. 각 사업장에 공급된 방류수는 추가 공정을 통해 조순수로 만들어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용수의 양은 하루 약 47만4000톤, 연간 1억7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효진 기자 js62@

## 최태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자신감

### “한국은 HW·SW 파워 갖춘 유일한 나라”

**민간대표단, BIE 총회 참석 3차 경쟁 PT 참관·유치활동 “현장 분위기 보니 해볼만 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엑스포 민간대표단이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참관 후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확보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유치지원 민간위원장(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엑스포 민간유치위원들은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했다.

민간대표단은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참관, 각국 대사관 방문, 리셉션·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27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만찬 개최 등을 거치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자신감을 확보했다. 특히 유치 경쟁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3차 PT에서 한국의 강점이 충분히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번 3차 PT에서 BTS, 꼬마 외교관 캠페인 아시아, 오징어 게임 등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인류 공통의 당면 현안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잘 담았을 뿐 아니라 한국이 하드웨어 강점과 소프트웨어 파워를 겸비한 유일한 나라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삼성전자 사장은 “한국 발표의 차별성이 돋보였다”면서 “경쟁국들은 개최지의 장점을 부각하려 노력했다면 우리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 현대차 부사장은 “발표가 끝난 후 박수 데시벨은 한국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남은 1년이면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현대모비스 ‘이동형 연료전지 파워팩’ 수소지게차 실증

### 국내 최초로 국가인증통합 취득 건설 등 수소모빌리티 확장 기대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이동형 연료전지 파워팩이 실증사업에 본격 투입된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수소모빌리티가 산업, 건설기계, 대형 운송수단 등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동형 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수소지게차의 실증사업을 시작하는 ‘킵 오프(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연료전지 파워팩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기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는 물론 산업에도 최적화된 파워팩을 선보이기 위해 연구 중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5톤급 중형 수소지게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뉴인(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사)이 공동개발했다. 5분 내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으로 5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현대글로벌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자가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수소지게차 시범 운행은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내 이동식 수소충전이 가능한 현대글로벌 울산 KD 센터에서 진행된다. 현대글로벌이 담당하는 실증 운영 모니터링을 거쳐 주행데이터와 개선점 등이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양산형 수소모빌리티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연료전지 파워팩의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대규모 수소지게차 플릿 운영을 추진한다.

실증사업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최근 수소산업의 안전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국내 최초로 이동형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가인증통합(KC)을 취득했다. 이민재 기자 2mj@

## ‘안정’ 택한 GS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 유임

### ‘4세’ 허태홍·허진홍 상무 승진

GS그룹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대부분 유임하면서, 신사업 인재를 신규 임원으로 대거 승진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GS그룹은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 선임 21명, 전배 3명 등 총 32명에 대한 2023년도 임원 인사를 내정해 30일 발표했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는 대부분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주)GS의 재무팀장(CFO) 겸 PM팀장 이태형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

진한다. GS칼텍스의 지속경영실장 김창수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 M&M(Mobility&Marketing)본부를 맡는다. 김 부사장은 앞으로 M&M본부를 이끌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전선규 GS칼텍스 상무, 최우진 상무 △정영태 GS리테일 상무, 김진석 상무 △GS글로벌 김상현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고, △임철원 GS포천그린에너지 대표이사 상무는 전무 승진과 함께 GS동해전력 대표이사로 이동한다.

GS그룹의 ‘오너가 4세’도 임원 명단에 포함됐다. 허태홍 GS퓨처스 대표이사와 허진홍 GS건설 투자개발사업그룹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기업 간 거래〉

# “B2B 매출 70%인데”... 10년째 한샘 못 넘는 현대리바트

국내 가구업계 '빅2' 중 한 곳인 현대리바트가 현대백화점 그룹 편입 10년이 지나도록 경쟁업체이자 가구업계 1위 한샘을 위협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영업망 확대와 프리미엄 시장을 강화하고있지만 그룹 후광효과에 B2B(기업 간 거래) 비중만 늘어날 뿐 소비자간거래(B2C) 사업부문에서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30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현대리바트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1조931억 원) 중 B2B(기업 간 거래) 매출은 7197억 원으로 66%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 누적매출(1조347억 원) 중 B2B가 차지한 매출 6651억 원(64%)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 현대리바트의 B2B사업은 크게 B2B가구와 B2B사업으로 나뉜다. B2B가구는 빌트인, 오피스, 선박 등에 들어가는 기업 간 가구 판매 거래가 포함된다.

B2B사업은 이라크, 카타르 등 해외 건설공사 수주로 인한 매출액 등이 여기에 반영된다. 올해에는 오피스 부문이 17%, 선박이 55% 가장 성장했다. 건설공사에서도 매출 규모가 17% 넘게 확대됐다. 건설

누적매출 비중 1년새 64%→66% 해외건설공사 수주매출 확대에도 소비자간거래 큰 한샘에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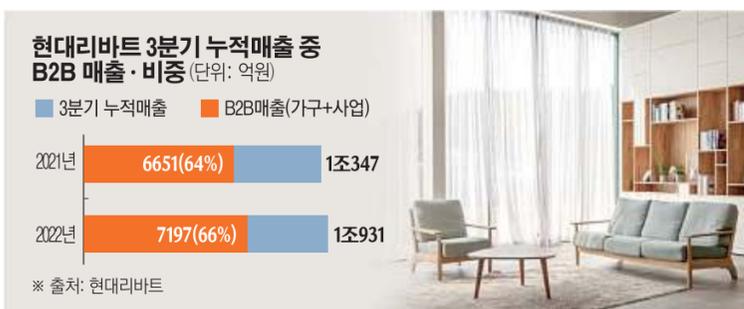
업계 “소비자 이목 끌 전략 부족 B2C 매출반등 없이 회복 어려워”

공사는 건축이나 토목 등 대규모 본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과 숙소, 임시도로 등의 설비를 갖추는 공사다.

업계에서는 2011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현대리바트가 범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리바트가 올해 3월 수주한 842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프라 유틸리티 및 황회수 시설공사 중 건설공사는 현대건설이 발주한 공사다. 지난해 4월 때낸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공사의 건설공사 사업(약 1000억 원 규모)도 현대건설로부터 수주했다.

그간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대규모 해



외건설 프로젝트의 건설공사는 대체로 중동 등 현지 해외 건설사들이 맡아왔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건설공사를 맡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매출의 절반 이상이 B2B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B2B에는 수십년동안 초대형 LNG운반선, 유조선 등에 가구를 공급해온 마린 같은 사업도 포함돼 있었지만 일부 사업에선 보이지 않게 전폭적인 그룹 지원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한해 현대리바트 연매출 1조 4000억 원 중 B2B 매출은 9000억 원 수준에 달했다. 연매출 규모가 2조 원인 한

샘은 B2C 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업계에선 현대리바트가 든든한 지원에도 업계 1위로 올라서지 못하는 데엔 B2C사업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할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리바트는 2018년 ‘도털 인테리어 기업’을 선언하고, 올해 ‘리바트 집테이아’ 영업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리바트도털 전호를 시작으로 연내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목동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등 그룹 유통망을 활용해 도털 인테리어 전시장 6곳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프리미엄 전략도 지속하고 있다.

그 사이 한샘은 침체를 극복할 돌파구로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공사’, ‘무한책임 리모델링’ 시스템 도입 카드 등을 꺼냈다. 한샘이 B2C사업이나 브랜드 이미지, 인테리어에서의 우위가 워낙 확고한 상황에서 현대리바트가 그룹의 유통채널에만 기대채 윈윈 영업망 확대와 프리미엄 전략으로 소비자를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현대리바트가 당분간 B2C에서 이익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리바트는 B2B 부문 외형 확대도 전체 매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B2C 부문에서 매출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체 이익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2B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추가 수주가 뒤따르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정점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세움EAP는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및 가족 문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사 교육양성  
프로그램

## ESG 경영 혁신대전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학도(오른쪽 세 번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시중은행 대표자들이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2 ESG 경영혁신대전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우수 혁신사례 상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부

## “기업별 ESG 맞춤형 지원” 중기부, 5대 시중銀과 맞손

〈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

### 2022 ESG 경영혁신대전

‘중소기업형 체크리스트 2.0’ 지원  
탄소중립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관 협력 방식의 중소기업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 5대 은행과 손을 잡고 우수 ESG 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3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2 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

‘2022 ESG 경영혁신대전’은 △ESG 지원정책 확대 △우수사례 포상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한 행사로 이번이 처음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 관계자와 이영 장관, 김학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른 상세한 금융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은 5대 은행이 모두 참여 중인 ‘ESG 민관협의회’를 통해 후속 논의·실행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 ‘ESG 경영 우수 혁신사례 공모’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기업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영특수강과 국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선호를 얻은 현진제업은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 혁신 사례로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받은 백우성 셀코스 대표는 “표면처리 기술은 최종 공정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환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친환경 무오염 기술’ 도입으로 30%의 원가 절감을 이루고 지난해 2000만 불 수출의탑을 수상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백우성 대표는 ESG 경영이 환경·사회 외에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셀코스는 제조 공정의 마지막인 표면처리에서 화학물질이 아닌 친환경 무오염 물질을 최초로 사용한 회사다.

중진공의 지난해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12%에 그쳤고, 모른다고 답한 곳은 46.7%에 달했다. ESG 경영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답한 중소기업 역시 25.7%에 불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ESG 경영의 실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ESG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립했던 ‘중소기업형 ESG 체크리스트’를 확대·세분화한 ‘체크리스트 2.0’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ESG 규제 정보와 예상 영향 △정부 및 주요기관의 ESG 지원사업 △ESG·탄소중립 진단시스템 등을 한데 모은 ‘ESG·탄소중립 온라인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제지 기자 sunrise@

# ‘상폐갈등’ 여론전에… 투자자들은 “상폐과정 공개하라”

## 위메이드-닥사 대립 격화

양측 정당성 강조하며 여론전 업비트 “유통량 7000만개 차” 투자자 “상폐 이유 알고 싶다 결정 과정서 공정·상식 배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놓고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쪽이 입장문을 내면, 다른 쪽이 반박문을 내는 식의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지자, 금융권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여론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상폐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며 이달 2일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 “상폐 이유 명확히 알고 싶다”…업비트 향한 집회 예고 = 을 들어 김치코인 쇼크를 불러온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급격히 커지자, 위믹스 상폐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위믹스 거래량의 95%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투

### DAXA vs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여론 반응

이건호 전 KB 국민은행장	“DAXA 매매를 증가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래소가 올바른 기준 제시했는지 의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국에서 권한 부여하지 않음... 어떤 근거로 상장 폐지를 하는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DAXA는 결정 내릴 권한 있는 기구”
투자자	“상장 폐지 명확한 이유 알고 싶다”

자손실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은 불가피했다. 현재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100여 명 수준으로 관찰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A씨는 집회 참가자 모집 글에서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공정함과 상식이 배제됐다”라며 “위믹스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위믹스와 장현국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점을 기억 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A씨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다수 투자자들이 상폐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닥사가 상폐의 이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

다가 일부 매체에서 거래소 공지보다 먼저 상폐 소식을 알리는 등,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 투자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며 집회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업비트가 이번에 상폐 이유와 과정을 공개했을 때, 명확하게 위메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부터 위메이드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위메이드와 닥사의 싸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자”라며 “투자자들이 부실한 암호화폐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소명 과정 공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며 “닥사 차원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이미 위메이

드 측에 충분히 제공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모든 내용을 현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이 제시한 유통량 관련 수치가 계속 맞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문제가 된 유통량은 지난달 26일 위메이드 측이 코인마켓캡에 정정 공시한 약 3.1억 개와 유통량 계획표에 있는 약 2.4억 개의 차이인 약 7000만 개였다. 소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추후 법원의 가져본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닥사 결정 불합리” vs “심사숙고한 합리적 결정” = 위믹스의 유통량 부실 공시와 신뢰 훼손을 이유로 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지난달 24일 이후, 위메이드와 닥사 측은 상폐 원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기에 금융권, 정치권 등이 가세하며 여론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건호 전 KB 국민은행장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장의 여론전이 시작됐다. 이 전 은행장은 “닥사의 결정에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라며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은행장은 닥사

가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집단적인 거래 지원 조치는 명백한 담합이며 △내부자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은행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상장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거래소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 전 은행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김병관 전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해관계로 얽힌 웹젠의 최대주주라 김 전 의원의 주장엔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닥사의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고 자율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닥사 측 역시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는 상폐 결정은 유의종목 지정 후 2차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라며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yonheesung@

## 게임업계 주요 가상자산



위메이드 위믹스(WEMIX)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받은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넷마블 마브릭스(MBX)	NFT 거래를 위한 서비스, 온보딩된 게임들의 NFT 경매, 매매 등 지원
카카오게임즈 보라(BORA)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지원.
컴투스홀딩스 엑스플라(XPLA)	웹3 게임, 메타버스, NFT 마켓플레이스 등 생태계 구축
네오위즈홀딩스 네오핀(NPT)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게임이 아닌, '디파이'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돈 버는 게임〉

## 게임 차세대 먹거리 ‘P2E’ 김치코인 쇼크에 속도조절

### 가상자산 활용 게임 전략 수정 개발 중단… 부정적 인식 차단

위메이드를 필두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로 수익성 확보를 노리던 게임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P2E 서비스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시장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이라는 카테고리가 겹치면서 신뢰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업계에서는 최근에 잇따라 불거진 대형 악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29일 분지 취재에 따르면 위믹스 상폐 결정 이후 게임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전략의 수정·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게임업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넷마블의 ‘마브릭스(MBX)’, 컴투스홀딩스의 ‘엑스플라(XPLA)’,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 등이 있다. 네오위즈홀딩스는 자회사 네오플라이를 통해 ‘네오핀(NPT)’을 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상폐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믹스가 게임업계 가상자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던 곳이었다 만큼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정지가 됐다는 점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A

업체 한 관계자는 “게임사별로 전략이나 방향성 등은 원래 다 달랐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보완적 이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전체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게임 출시 전략을 수정했다. 넷마블의 경우 ‘모두의 마블:메타월드’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고, ‘몬스터 길들이기’ IP를 기반으로 개발하던 P2E 신작 게임의 개발을 중단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RF 프로젝트’ 역시 향방이 미지수다. 네오위즈는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 X’를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카카오게임즈와 컴투스홀딩스 등은 지속하고 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서도, 전략 수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게임사별로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식시켜줄만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믹스의 경우 파트너사와 협의를 통해 100개의 게임을 온보딩하기 위한 플랫폼 개념이었던 만큼 기본 개념 자체가 일반 게임업체 코인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상폐 두고 與野 이견… 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 상폐 제도적 기준 도마위

여 “닥사, 상폐 결정 권한 있어” 야 “근거 없어…자율규제 허상” 투자자 보호 위해 법제화 시급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코인 시장과 상폐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 문제를 촉발시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안인 ‘디지털자산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닥사에 힘을 실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홀더 등을 비롯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닥사의 권한 문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윤 의원은 “자율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닥사는 상장 폐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권한이 있다는 것과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잘 된 결정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어떤 관행과 어떤 투자자들이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암묵적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사의 결정을 두고 “자율규제의 허상이 보인다”라며 “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상폐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경우 80조에 산업합리화 등으로 열거한다. 이 경우 가능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과정을 승인한다”면서 “협화 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원의 닥사가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준과 상폐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서 “법안 논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 속에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 법제화는 당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법) 초기 법안은 1단계 거래법으로 시작해 2단계 기본법으로 단계별 접근을 생각하고 있는데, 닥사 문제 같은 상장 폐지 기준은 2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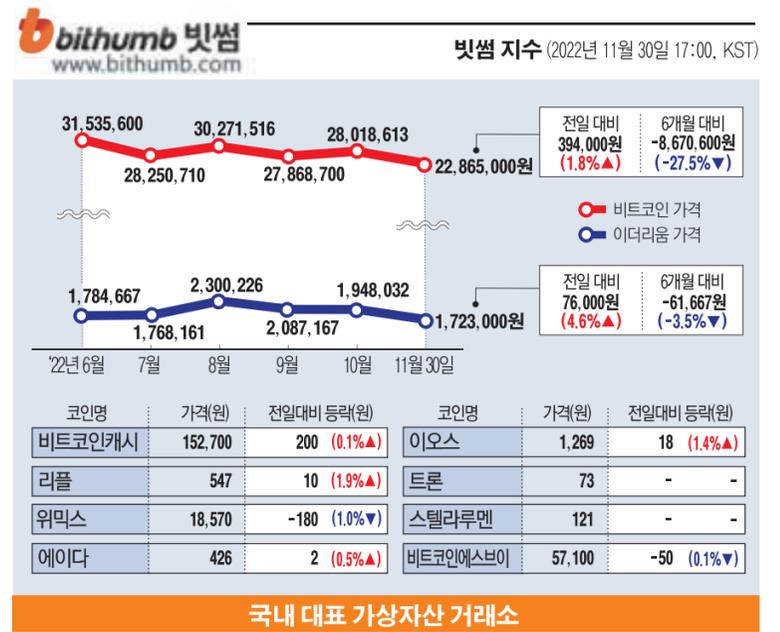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

던 디지털 자산법 초기 법안 역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을 준비 중이었다. 완전한 단일 법안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 분리,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 심사에서 디지털자산법을 다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제도 마련이나 과세 논의 등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위믹스 사태 이후 윤리 이슈에 문제가 없도록 내부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반지하·옥탑방·고시원〉

# “지·옥·고 탈출 돕겠다”...서울시, 7.5兆 들여 안심주택 공급

##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자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촉촉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촉촉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다.

우선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갈 방침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침수이력 있는 반지하 주택 매입 신축하거나 지하 비주거용 전환 지상층은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노후 고시원, 수리 후 공공기숙사로 옥탑방에도 단열 등 수리비용 지원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 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촉촉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 3구역(500가구) △광운대역세권(924가구) 지역에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짓는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

다.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4년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판자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상황을 지원한다. 구룡·성취·재건마을 등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대책이 실현·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물량 문제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조만간 조직과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민용 기자 pmw7001@

## ‘친환경·공공성 확보’ 강요에 동력 잃은 서울형 리모델링

서울시가 리모델링 용적률 운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부서명에서도 ‘지원’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라는 서울시의 해명에도,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 단계들은 앞으로 지원사업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8월 29일부로 주택정책실 산하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지원팀을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으로 개편했다. 기존 부서명에서 ‘지원’을 뺀 것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계의 친환경·공공성 부담을 늘렸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에 대한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환경과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용적률 혜택을 쟁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장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리모델링 단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용적률을 쉽게 가져갔는데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고쳐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중구 남산타운, 구로구 신도림 우성1·2·3차, 송파구 문정시영 등 시범단지 7곳이 선정됐다. 리모델링 단지에 기본계획 수립 등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지난해 11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최대 20% △녹색건축물을 조성 최대 20%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 설치 최대 30% △상업시설 등 가로활성화 등 최대 10%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규 운영기준

항목	원화 기준	※ 출처: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
<b>기반시설 정비</b>	대상지 주변 기반시설 정비	최대 10%
<b>친환경 건축물</b>	녹색건축물 설계	최대 4%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최대 7%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최대 12%
<b>지능형 건축물</b>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적용	최대 3%
	전기차 충전소 설치	최대 4%
<b>자연친화시설 (공유시설)</b>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	최대 10%
	공공보행도로·거주자 우선 주차장·열린놀이터 조성	최대 8%
	지역공유시설 설치	최대 8%
<b>가로활성화</b>	담장 허물기	4%
	개방형 주차장 조성	최대 8%
<b>주요정책반영</b>	보도형·차로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최대 8%
	상업용도 등 가로활성화 용도	4%
	세대구분형 주택(멀티홈) 도입	최대 6%
	시·구 주요정책반영	최대 10%

리모델링팀 부서명서 ‘지원’ 뺀 ‘용적률 혜택 너무 쉽게 챙겨갔다’ 새 운영기준, 인센티브 대폭 낮춰

‘태양광 등 공사비 수십억원 쯤중’ ‘서울형’ 추진단계 조합 불만 고조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던 만큼 수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객관적인 평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했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친환경과 공공성 부담을 늘린 형태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기존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치를 낮추면서 사실상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새로운 운영기준은 이전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이 더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최대 1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적용 최대 3% △전기차 충전소 설치 최대 4% 등이 신설됐다. 그간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 항목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최대 20%)만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했는데 이를 세분화해 줄였다.

자연친화시설 항목의 경우 △개방형 주차장 조성 최대 8% △보도형·차로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최대 8% 완화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지능형 건축물 항목에선 지능형 건축물 인증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돼 인센티브가 20%에서 10%로 감소했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700가구 규모) 단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적용’ 인센티브(최대 3%)를 받기 위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새 운영기준에 맞춰 용적률 30%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공사비가 2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인 건 자명한 사실인데 구태여 친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주택거래 ‘반토막’...미분양 공포도 계속

10월 거래 3.2만건...1년 새 57% ↓ 미분양 4.7만가구, 전월비 13.5% ↑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거래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택은 전월 대비 13.5%(5613가구) 증가했는데, 9월 증가량 27%(8882가구)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9월(4만1604가구) 대비 13.5%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방은 상승세가 여전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7612가구로 전월(7813가구) 대비 2.6%(201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3만9605가구로 전월(3만3791가구) 대비 17.2%(5814가구) 늘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가구는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은 총 7077가구로 전월(7189가구) 대비 1.6%(112가구) 감소했다.

10월 주택 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만2403건) 대비 0.7%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월(2021년 10월) 7만5290건과 비교하면 57.3% 줄며 반토막이 났다. 올해 누적 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238건) 대비 49.7%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2102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지방은 2만71건으로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4403건으로 전월(20만5206건) 대비 0.4% 줄었지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241만8569건으로 전년 동기(194만3192건) 대비 24.5% 늘었다.

지난달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만8318가구로 전년 동기(40만5704가구) 대비 5.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4만9743가구로 같은 기간 26.5% 줄었지만, 지방은 27만8575가구로 38.0% 늘었다.

정용욱 기자 dragon@

〈3.3㎡당〉

##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 9024만원, 강북구의 3배

서초 8759만원·용산 6766만원 강남·강북지역 가격 차이 5.2억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000만 원으로 강북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1월 서울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069만 원으로 확인됐다.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다. 올해 11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02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구는 87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용산구 6766만 원, 송파구 6700만 원, 성동구 5855만 원, 마포구 5467만 원, 광

진구 5336만 원, 양천구 5209만 원, 강동구 5074만 원 순이다. 반면 강북구는 3198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5억3099만 원, 10억642만 원으로 가격 격차가 5억 2457만 원에 달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과 아파트 가격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와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남구의 경우 생활인프라가 뛰어난 데다 수요가 풍부해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유동성 공급 부담됐다... 은행, 서민금융대출 줄였다

**지난해 사회책임금융 14% 뚝**  
**4대 은행 새희망홀씨 공급액**  
**올들어 30% 이상 줄어들어**  
**정부 “기업 대출 확대” 압박에**  
**100% 은행재원 서민금융 부담**  
**저소득층 대출길 좁아질 수도**



**4대 시중은행 사회책임금융 실적** (단위 : 원)  
 ※ 사회책임금융 : 새희망홀씨,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상품 실적

은행	2020년	2021년
KB국민은행	6703억	5946억
신한은행	1조1808억	9751억
하나은행	6196억	5485억
우리은행	7288억	6660억

※출처 : 은행연합회 '2020·2021 은행 사회공헌보고서'

**4대 시중은행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단위 : 원) ※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중 서민 대출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최근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이 묶이고 유동성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대출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은행연합회의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사회책임금융'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책임금융은 국내 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유스 등의 공급 규모를 뜻한다. 은행연합회 공시 대상인 전체 국내은행의 지난해 사회책임금융 규모 역시 4조6802억 원으로, 직전 연도(5조4215억 원)보다 줄었다.

행 공급 규모도 2020년 3조6794억 원에서 2021년 3조173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11월 출시된 대출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이다.

전체 새희망홀씨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는 4대 시중 은행들로 좁혀 보면 공급 규모 감소세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28일 기준 4개 은행의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총 1조4277억 원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인 2조503억 원보다 6226억 원 줄었다. 4개 은행의 올해 하반기(7월~11월 28일 기준) 새희망홀씨 신규취급액이 691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공급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새희망홀씨는 정부 재원 등으로 공급되는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달리 100%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다. 은행 유동성과 건전성이 공급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환경이 악화할 요인은 더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채 발행, 수신금리 인상 등 은행권의 자금조달 수단은 막으면서 기업 대출 확대를 권하고 있는 탓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발작

적으로 오르는 건 막아야 한다고 본다”며 “자금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같이 은행권 유동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는) 대상자가 저소득자, 저신용자라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관리하기 어렵고,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상품이라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당장은 은행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자금조달 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대출금융상품의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봐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에 신경을 쓰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늘린 것도 서민층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라는 권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월 감독당국은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저소득자 등 서민층을 위한 대출 상품 공급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높아져 서민들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 계층이나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시중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내년 경기 침체가 걱정되기에 시중은행들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중은행이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 정부는 그만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은행의 공급 여력을 높이는 등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하영 기자 haha@

## “정부 유동성 대책, 2금융권 위기 막기엔 부족”

**‘2금융권 유동성 위기’ 간담회**  
**자금경색 해소 기대감에도**  
**내년 PF 대출 부실화 불안**

정부가 금융 경색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2금융권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2금융권 유동성 위기 경고음’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열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되면서 기업 채무 상환 능력이 어려워지고 내년은 더 부실화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분기 미분양이 작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면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돈줄이 막히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자금 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진행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2금융권은 정부 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불안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채안펀드에서 여전채를 일정부분 매입을 해주는 등 자금시장 안정조치를 취한 만큼 자금경색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전사들은 자금 조달 창구인 여

전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빠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로금리였던 여전채는 현재 5~6%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전무는 “2002년 도부터 영업을 시작한 대부업체는 2009년 1만9000개까지 늘어났다가, 점점 감소해 현재는 8000여 개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18조 원이었던 대출잔액도 작년 14조 원으로, 220만 명에 달하던 이용자 수도 110만 명으로 줄었다.

고선영 금융위 중소기업 사무관은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체 등은 취약자 주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취약자 주 부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근 기자 nova@

성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분기 미분양이 작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면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돈줄이 막히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자금 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진행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2금융권은 정부 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불안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채안펀드에서 여전채를 일정부분 매입을 해주는 등 자금시장 안정조치를 취한 만큼 자금경색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전사들은 자금 조달 창구인 여

## 공공기관 대출 늘리는 은행권

**정부 유동성 규제 일시완화에**  
**국가철도공·한전 등 자금수혈**

은행들이 공공기관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채권 발행 자체 권고에 나서는 한편, 은행들에는 공공기관 대출 확대를 독려한데 따른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900억 원의 자금을 단기 차입했다. 각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씩을 차입했으며 금리는 평균 5.459% 수준을 적용받았다. 철도공단은 그간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앞서 정부는 자금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에 채권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은행 대출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탓에 공공기관은 채권 발행에 집중해왔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에 공공기관 대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은행들의 유동성 규제를 일시완화해줬고, 은행들은 공공기관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들어 3조 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채권 시장 불만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전에 연말까지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달에만 하나은행에서 6000억 원, 우리은행에서 9000억 원을 대출해 총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대출금리는 연 5.5~6.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유동성 지원을 해준 것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는 의미”라며 “공공기관 대출 확대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은행 역시 은행채 발행이 중단되는 등 자금 조달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빨리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다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손태승 회장 “다문화가족 정착 위해 지원 확대할 것”

**10주년 맞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2012년 재단 설립 후 초대 사무국장을 맞아 손길을 안 거친 곳이 없는 만큼 이사장이 된 지금도 재단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손 이사장은 10년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협력한 공로자와 기관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용성(왼쪽부터) 감사, 최병오 이사, 이재술 감사, 손태승 이사장, 이종휘 이사, 김홍국 이사. 안병덕 이사가 29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이 200억 원을 공동 출연해 2012년 금융권 최초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다문화가족과 동반성장했고, 2023년을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 지자체, NGO 단

체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거쳐 배출된 5200여 명의 장학생들이 학업 및 특기 예술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들로 성장했고, 후배들의 멘토로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내고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토뱅크, 3분기 476억 순손실에도 적자폭 줄어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 순손실 476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 누적 순손실은 1719억 원이다. 3분기 당기순손실은 2분기 589억 원 대비 113억 원 적자폭이 축소됐다.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1719억 원)에서 총당금전입액(1334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약 80%다.

올해 3분기 총당금 적립 전 이익은 분기 기준 첫 흑자 전환(185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3분기 말 고객 수 476만 명, 10월 말 기준으로 504만 명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여신잔액 7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2분기 4조3000억

원 대비 66% 이상 대폭 성장했다. 예대율은 29.57%로 2분기 15.62%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여신부문 고속 성장으로 총당금이 2분기 대비 233억 원 늘어난 가운데 이뤄낸 성과다.

명목순이자마진(NIM)은 3분기 0.54%로 2분기 0.12% 대비 4.5배 상승했다. 순이자손익은 1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혁신과 중저신용자 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해 모두를 위한 제1금융권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꽝꽝 언 투심 녹여라”... 상장사, 뜨거운 주주친화 행보

메리츠, 증권·화재 자회사 편입  
코리안리는 발행주 20% 무증  
네이버·SK하이닉스 배당 늘려  
OCI·현대백 인적분할 행보엔  
“대주주 배불리기 꿈수” 비판도



주주친화 정책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 추이

기업명	정책 발표일		다음날 주가	변동률
	발표일	주가		
코리안리	28일	8100원	8330원	2.84%
메리츠금융지주		2만6750원	3만4750원	29.91%
메리츠증권	21일	4520원	5870원	29.87%
메리츠화재		3만5700원	4만6400원	29.97%
산들	24일	1만4550원	1만4750원	1.37%

신한지주(2121억) 등이 3분기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했다. 휠라홀딩스는 주당 현금 880원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

반면 대주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도 있다.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에 나선 OCI는 주주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사업 구조개편이지만, 오히려 일가인 이우현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라는 해석이다.

강동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OCI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회사 OCI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OCI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공개매수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OCI홀딩스 주식을 신주로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OCI홀딩스 보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OCI 지분을 현물출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홀딩스(신설회사)와 현대백화점(존속회사)으로 기업 조개기를 하면서 한우소프는 지주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의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이번 인적분할이 진행되더라도 백화점 사업부는 여전히 분리된 상태인 셈이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목적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중기는 3년 이상의 기간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지난 달 21일 메리츠금융그룹의 자회사 합병 콘퍼런스 발표자로 나서 밝힌 중기 주주환원율 50%와 관련한 설명이다. 또 메리츠화재·증권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병 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주주 친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달 21일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개편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주요 상장 자회사를 상장폐지 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대주주(오

너)의 지분율은 하락하게 된다. 메리츠화재와 증권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서 조정후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의 지분율은 78.9%에서 47%로 낮아지게 됐다.  
자회사 상장 일색인 국내 증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행보다. 이제까지 국내 상장사들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뗐다 붙였다 해오며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남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의사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는 한국 특유의 문어발 상장 트렌드에 완전히 역행하는 파격 그 자체이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지난 달 28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20%를 무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발행 주식수는 17% 증가하고, 주주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 지분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자비율이 높진 않지만, 자사주를 배제해 주주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인삼공사 인적 분할 등 주주제안을 받은 KT&G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주를 비롯해 자본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사모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지난 달 10월 KGC 인적 분할을 포함해 △관련형 전자담배(HNB) ‘릴’의 글로벌 전략 수립 △비핵심 사업 정리 △인여 현금 주주 환원 △사외이사 선임 등이 담긴 주주 제안서를 공개

했다. 안다자산운용도 비슷한 내용의 공개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김진한 KT&G 전략기획본부장(전무)은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에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주의견을 수렴하고 장기 주주 가치 제고 및 극대화 차원에서 (요구사항을)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주주환원을 기대케 했다. KT&G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3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하고, 주당 배당금 또한 전년 대비 200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3분기 1370억 원의 특별 분기배당을 했다. 올해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도입한 SK하이닉스도 3분기에 206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금리 인상으로 이익이 급증한 금융지주들도 대거 배당에 나섰다. KB금융(1948억),

## “그래도 믿을 건 美펀드뿐”... 서학개미, 3.7兆 담았다

올 美기술주 약세...향후 반등 기대감  
북미펀드 평균 -20%... FOMC 주목

펀드시장에 ‘서학개미’ 돌풍이 매섭다. 최근 달러 강세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펀드시장에서는 미국 주식형 펀드로의 투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북미 펀드 유입은 올 들어 약세를 보이는 기술주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북미 지역 펀드에 3조6883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

났다. 3개월 사이에만 5000억 넘게 몰려 들었다. 올해 들어 중국과 중화권 지역 펀드도 설정액이 각각 7800억 원, 6800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북미 펀드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북미 펀드 784개 중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키움하이테크미 국물류포트폴리오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로, 수익률이 274.64%에 달한다.  
‘삼성KODEX미국에너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과

‘KBKBSTAR미국S&P원유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H)’은 각각 수익률 77.32%와 51.63%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코스피지수의 평균 등락률이 -16.96%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익률이다.  
다만 북미 펀드도 올해 평균 수익률로 보면 -20.10%로 저조한 편이다. 최근 한 달간 수익률도 -0.13%로 여전히 하락세에 있다. 미국 금융시장이 이전보다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코로

나19 상황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불안정한 요인들이 남아있어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며 연준 속도 조절 전망에 기댄 자산가격의 상승은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을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가 시장에서 안도감을 줄 수 있으나 아직 상황 조정 여지는 남아있고, 이후 나타날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

확실성도 여전히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부진했던 북미펀드 수익률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대로 곧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2년은 지난 10년 동안 주식 펀드와 채권 펀드 모두 가장 부진한 한 해였다”며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하나증권 임직원들이 지난 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 하나證,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

겨울나기용 연탄·생필품 전달  
하나증권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개미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겨울나기 필수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연탄 3000장과 쌀·라면 등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마스크 60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하나증권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동영 하나증권 ESG본부장은 “하나증권은 개미마을 등 겨울마다 에너지 취약계

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고자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올해 혈액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쿨쿨웃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하나증권은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 다음금융그룹 ‘벤처 챌린지’ 대학생 10개팀 창업지원금

다음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와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다음 벤처 챌린지 2022’를 열어 수상팀에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62개 대학 137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커피 찌꺼기와 화력발전소 석탄 회로 산물 복원용 식물종자 식재기구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에 돌아갔다. 다음금융그룹은 10팀에 창업지원금 2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 창업교육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석중 다음금융그룹 부회장은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들의 열



최석중 다음금융그룹 부회장(중간줄 왼쪽 5번째)과 김창규(중간줄 왼쪽 6번째) 다음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사가 지난 달 29일 ‘다음 벤처 챌린지 2022’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다음금융그룹

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다음벤처 챌린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다음 벤처 챌린지’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음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삼성證, 온라인 ‘비상장주식 Total 솔루션’ 확대

삼성증권은 최근 온라인 고객 대상 ‘비상장주식 Total 솔루션’ 서비스를 오픈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비상장주식 Total 솔루션’ 서비스는 △주요 비상장 기업의 분석 리포트 △비상장 기업 관련 종합 컨설팅 △증

권플러스 연계를 통한 통합 안전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 관련 컨설팅은 10억 원 이상 자산의 온라인 초부유층 고객을 전담하고 있는 디지털SNI팀의 PB들이 전담한다. ‘비상장주식 Total 솔루션’ 메뉴

는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의 주식·투자정보→비상장주식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비상장주식 Total 솔루션’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대표 비상장주식(30개 종목 선정)을 삼성증권으로 입고한 고객에게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 신한 청년 포텐 프로젝트가 만들어갈 미래, AI로 그려보았습니다



### AI 입력 키워드:

청년들이 사는 곳을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꿈을 고민하는 세상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빛나는 아이디어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세상 ...

\*광고에 쓰인 이미지는 AI 아트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벤츠·현대차 시동 끈 러시아... 중국차들은 '풀액셀'



## 글로벌 완성차 '러 대탈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9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는 그 범위와 수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전쟁 발발 초기,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은 속속 현지 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부품 조달의 어려움”이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으나 더 큰 시장을 겨냥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현대차와 기아도 러시아 철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상 철수한 러시아 현지 시장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장악하기 시작했다.

◇다국적 기업의 '러시아 엑소더스' = 전쟁 발발 초기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문을 닫았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매장의 문을 닫았고, 이케아도 철수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다국적 기업 100곳 이상이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 잠정 중단 혹은 철수를 선언했다. 불이 꺼지고, 비어 있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튀르키예와 중동 업체들이 문 닫은 외국기업을 인수하고 나섰다.

예컨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매장은 비슷한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매장 분위기 역시 이전과 유사하게 꾸몄다.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파악한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은 151곳이다. 직접투자 규모로 보면 제조업이 60%에 육박한다. 자동차와 전자, 의약품, 식료품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자동차와 LG전자는 전쟁 직후 “부품 조달 차질” 등을 이유로 현지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현재 고용은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생산과 수출이 중단됐지만 이른바 ‘고정비’ 명목의 지출은 지속 중인 셈이

전쟁 장기화에 서방 제재 확대 車 기업들 현지 생산·판매 중단 현대차, 공장 멈췄지만 고용유지

러, 수입차 비중 높아 잠재력 커 中 오모다·제투르 등 현지 진출 상반기 점유율 ‘두자릿수’ 점프

다. 사업 철수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매체에서 최근 현대차와 LG전자의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재 품목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는 우리 기업도 있다.

러시아 현지에서 라면을 판매해온 팔도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스페인 식품기업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라면 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어느 정도였나 = 한국과 유사하다. 150만 대 안팎의 승용차가 팔리고 상용 트럭과 버스를 포함하면 180만 대 수준이다.

한국 인구가 약 5200만 명이지만, 러시아 인구는 1억4500만 명 수준이다. 지금이야 한국 내수 차 시장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여전히 높은 시장 잠재력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러시아 승용차 판매 대수는 159만9000여 대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신차 부족 등이 판매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구매 보조금 영향으로 지난해 판매 수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통계의 기준과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수치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 매체도 많지 않은 상태다.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구조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전체의 85% 수준을 자국 생산분이지만 러시아는 수입차 또는 해외 브랜드가 약 75%에 달한다.

2020년의 경우,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6배 많았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러다’와 같은 러시아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은 수입차 또는 해외 브랜드를 선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런 노른자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잇따라 철수했거나 판매를 중단했다.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GM, 프랑스 르노, 스웨덴 볼보, 일본 토요타, 혼다, 닛산 등이 러시아에서

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업체들은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현지 수출은 물론 공장까지 멈춰 세웠다. 특히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2공장 양산을 목전에 둔 상태여서 안타까움이 컸다.

◇러시아 자동차 빈자리, 누가 메웠나? = 중국이 빠르게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로이터와 타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의 △오모다(Omoda) △제투르(Jetour) △보이아(Voyah) 등이 러시아에 진출했다. 이름도 생경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다. FAW의 고급차 브랜드인 △홍치(Hongqi) 정도가 낮은 브랜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중국의 △탱크(tank) 브랜드도 러시아 진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EPA 통신은 “브랜드 이름이 주는 거부감을 이유로 브랜드명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도했다.

올 상반기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0.6%로 처음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이 5.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배 성장이다.

일부 현지 딜러는 남아있는 재고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바꿔 마른 수건까지 짜내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이 현지에서 하나둘 철수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고용을 유지한 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은 현대차의 현지 주력모델인 엑센트(현지명 쉐라리스). 사진제공 현대차



### 2021 러시아 자동차 시장 순위

(단위 : 대) ※ 8월 누적 기준 ※ ( )는 증감률 ※ 출처 : 코트라

순위	브랜드	국가	판매량 (대)	비율 (%)
1	러다	러시아	25만1660대	(31%)
2	기아	한국	14만2692대	(20%)
3	현대차	한국	11만8559대	(24%)
4	르노	프랑스	9만990대	(23%)
5	스코다	체코	6만6209대	(19%)
6	폭스바겐	독일	6만4686대	(7%)
7	토요타	일본	6만1411대	(6%)
8	가즈	러시아	3만3603대	(23%)
9	닛산	일본	3만1704대	(-9%)
10	체리	중국	2만1200대	(335%)

### 러시아 사업 중단 및 철수 기업

※ 출처 : 코트라, 로이터 통신

자동차	식품료
폭스바겐, 르노, 닛산, 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기아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네스프레소
전자	생활
애플, HP, 애플	이케아, 레고
패션	콘텐츠
자라, 나이키, H&M	넷플릭스, 디즈니 등

## 기아 셀토스 4대 러시아행... “주변국 수출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서방 경제 제재 반해” 우려 주변국들 車 관련 규정 없어 러시아 당국의 인증이 필수 셀토스 4대, 인증 위한 모델

기아가 러시아에 차량 몇 대를 수출해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 주변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확인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산업협

회 등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7월 러시아에 소형 SUV 셀토스를 수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직후 현대차그룹이 현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이었다.

앞서 러-우 전쟁이 시작되자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현지 생산은 물론 현지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생산은 물론 현지 수출까지 중단했다. 다만 현지 고용을 유지한 채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설비는 보유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아가 몇 대의 완성차 수출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뜻 서방의 경제 제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속내

를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일단 러시아 수출길에 나선 물량이 고작 셀토스 4대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완성차 수출 재개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셀토스 4대는 왜 러시아로 건너갔을까. 이는 러시아 주변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러시아 주변국, 이른바 “000스탄”으로 불리는 ‘스탄국’들은 자동차의 안전과 배기가스, 인증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동유럽 강대국인 러시아의 안전과 배기가스, 인증 기준 등을 도입해 자국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해 왔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 초기, 주력 시장인 미국의 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기아로서는 이들 러시아 주변국에 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당국의 인증이 필수다. 현지에 건너간 셀토스 4대는 이 인증을 위한 시험용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타타대우가 러시아에 화물차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완성차 수출은 중단된 상태”라며 “러시아 자동차 시

장은 이제 신차 대신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 중고차도 러시아 직접 수출보다 인근 국가로 먼저 수출된 뒤 이 중고차들이 다시 러시아에 되팔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기아 소형 SUV 셀토스, 사진제공 기아



# 곰표맥주·원소주 다음 잔은? 연말 앞둔 편의점 ‘술전쟁’ 짠

GS25 ‘버터맥주’ 주류 파티  
CU, 최근 주류특화 TF 발족  
이마트24·세븐일레븐 ‘와인’  
여름 성수기 공식 깨지며 경쟁

곰표맥주, 원소주 등 제2의 메가히트 작을 내놓기 위한 편의점 간 주류(酒類) 전쟁이 뜨겁다. 흡술족 증가로 사시사철 맥주, 와인, 위스키, 프리미엄 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 ‘주류 성수기=여름’ 공식이 깨지면서 업계는 콘서트, 파티 기획부터 주류특화 매장을 열어 경쟁력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GS리테일은 잇달아 주류 관련 파티 기획을 내놓고 있다. 지난여름 ‘박재범 원소주’를 필두로 인기 아티스트를 초청해 ‘뮤직비어페스티벌’을 대규모로 연 데 이어 버터맥주 제조사 ‘블랑제리보르’와 함께 V.I.P.고객 대상 셀럽파티를 열기도 했다. 상품을 중심으로 콘텐츠까지 결합해 고객들의 브랜드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자사 주류 애플리케이션 ‘와인25+’ V.I.P.고객을 대상으로 서울 문래동에서 대규모 와인파티를 당초 11월 25일 열 예정이었으나, 10·29 참사 발

생으로 잠정 취소했다. 지난해 말 GS리테일은 와인25+ 고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와인25 플러스 페스티벌’을 진행한 바 있다. 페스티벌은 100만 원 상당의 와인 시음행사, 위스키·맥주·스테이크 등 푸드 페어링 제공, 와인강의 및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GS25가 주류행사에 공을 들이는 건 편의점 간 치열한 주류 경쟁에서 ‘승기 균하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랩퍼 박재범이 내놓은 ‘원소주’와 블랑제리보르 ‘버터맥주’까지 잇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지금까지 누적판매량이 원소주는 300만 병, 버터맥주는 130만 캔에 달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버터맥주의 경우 추가 공급 물량 200만 캔이 지난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판매량이 킥업 점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제2의 곰표맥주’를 겨냥한 편의점 CU는 최근 주류특화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주류TF는 곰표맥주를 만든 이승택 음용식품팀 MD가 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편의점 프리미엄 맥주 붐을 일으킨 ‘곰표맥주’ 이후 프리미엄 소주 ‘빛24’, 캔하 이불을 선보였지만 주류 부문에서 이렇

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나온 움직임이다.

주류TF는 위스키 등 최근 인기 주류를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주중에 관계없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예정이다. CU 측은 최근 2030세대에서 인기가 높은 위스키도 차별화와 인기상품을 포켓CU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단순 진열식 특화매장 이외에 인종샴 명소 등 콘셉트형 주류특화 편의점 기획도 담당한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 역시 이달의 와인코너를 운영하며 주류 경쟁력 높이에 나선다. 이마트24는 12월 나라셀라와 손잡고 ‘라 크라사드’를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와인’을 앞세워 와인 시장 대중화를 선도했듯이 ‘이마트24+와인’ 공식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세븐일레븐은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춘 와인MD가 직접 업선해 추천하는 ‘이달의 MD추천 와인’ 행사를 매월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주류특화매장 콘셉트로 서울 강남구에 와인 전문 컨셉샵 ‘와인스튜디오’를 열었다. 회사 측은 일부 점포의 전체 면적 중 30~50%를 와인스튜디오로 전환하는 방침과 현재 전국 6000여 개 와인특화 매대 운영점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신세계푸드, 9980원 ‘뽕뽕덕 케이크’ 신세계푸드는 1일부터 인기 캐릭터 ‘뽕뽕덕’과 협업한 9980원 ‘뽕뽕덕 미니 케이크’와 1만 원 대 가성비 케이크를 전국 이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 미국 진출 두달만에 200곳 입점 아머드 프레시, 비건 치즈 돌풍

아몬드 밀크 기반의 식물성 치즈  
타임스퀘어 광고 공격적 마케팅  
푸드테크 선도...나스닥 상장 목표

지난 10월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낮은 한국 기업 광고가 등장했다. 회사명은 ‘아머드 프레시’. 올해 9월 주력 제품 비건 치즈를 미국 시장에 선보인 후 짧은 시간에도 일반 치즈와 맛이 비슷하며 현지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푸드테크 기업 아머드 프레시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내 오프라인 매장 입점 200개를 돌파했고, 279억 원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아머드 프레시 비건 치즈는 현재 미국에서 200개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 올해 9월 첫 제품을 선보인 후 약 2개월 만의 성과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연내 300개 매장에 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머드 프레시 비건 치즈는 아몬드 밀크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 치즈다. 자체 기술력으로 기존 식물성 치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 치즈에 버금가는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또 동물성 치즈와 근접한 수치의 단백질 함량을 함유하고 있다.

아머드 프레시는 기세를 이어 미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3’에 참가한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아머드 프레시 빌보드 광고. 사진제공 아머드프레시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10월부터 타임스퀘어 대형 빌보드 광고판에 제품 광고를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최근엔 미슐랭 3스타 요리사 장 조지가 운영하는 채식 레스토랑에 비건 치즈를 소개했다. 행사에는 현지 주요 매체와 증권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머드 프레시 전신인 ‘양유’는 애초 마케팅 회사였다. 2017년 식품연구소 설립 후 2018년 청년떡집과 우주인피자를 선보이며 사업영역을 바꿨다. 비건 치즈 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20년부터다. 작년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경기도 화성의 비건 치즈 제조 공장 인수로 제품을 양산했다.

아머드 프레시의 목표는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오경아 아머드 프레시 대표는 “미국 진출을 통해 푸드테크 K-스타트업의 위상과 K-푸드 기술력으로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온라인 밖으로 나온 플랫폼... 오프라인 영토 확장 속도

리셀플랫폼 ‘크림’ 롯데백에 매장  
발란·머스트잇은 강남·여의도에  
짜퐁 논란 회복·니즈 피약 등 효과  
백화점·쇼핑몰도 집객효과 환영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소비 성수기에 힘입어 오프라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유통 소비 축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소비자들의 브랜드 체험을 돕고 이미지 각인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개설이 필수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온라인 업체들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이 활발하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더현대 서울’이나 서울 성수동에 테스트베드 삼아 개설한 뒤 아예 플래그십 매장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자사몰을 통해 고객몰이를 한 후 직접 입어보고 만져볼 수 있는

‘쇼룸’을 선보이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짜퐁’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도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은 크다. 명품 플랫폼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짜퐁 논란에 휘말리며 신뢰에 금이 가면서다. 제품 하자 확인 절차 등이 중요한 명품, 고가 리셀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개설에 ‘진심’인 이유다.

‘GD 운동화’ 등 리셀붐을 일으킨 리셀플랫폼 ‘크림’은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자리를 잡았다. 크림은 무신사 리셀플랫폼 ‘솔드아웃’과 기쁨 논란 전쟁을 한 차례 치른 바 있다. 이에 크림은 오프라인 서비스 ‘드롭 존’을 선보였다. 앱으로 체결된 제품을 직접 매장으로 가져와 접수할 수 있다. 크림 소속 전문가들이 정품 여부와 컨디션 등을 검수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명품 커머스업체 발란과 머스트잇 등도 강남, 여의도 IFC몰에 각각 쇼룸과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머스트잇 오프라인 쇼룸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품을 고객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나해 11월 압구정 머스트잇 신사옥 건물 1층에 오픈했다. 발란이 처음 선보인 ‘커넥티드 스토어’ 역시 ‘신뢰자본’ 구축을 겨냥한 오프라인 매장이다.

백화점 등 정통 유통채널도 온라인 업체의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환영’하는 눈치다. 온라인에 머문 2030 젊은 고객들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온·오프라인 연계 시너지로 유통채널 전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현대백화점그룹 ‘더현대 서울’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쇼룸의 성지로 꼽힌다. 시에, 몸매 등 온라인 기반 쇼핑물 쇼룸과 지난해 동대문 신진 패션브랜드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쇼룸 형태의 팝업스토어가 입점했고, 최근엔 이구얼리, 아날자 쇼룸 등도 들어섰다.

‘신세계 군단’의 패션플랫폼 W컨셉도 오프라인 진출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강남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잇달아 열었고,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 美 울린 신라면... 농심, 북미 매출 23% ↑

농심이 올해 북미(미국, 캐나다·멕시코)지역에서 전년 대비 23% 성장한 4억 8600만 달러(추정치, 약 6315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 달성예가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지에서 신라면의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제2공장 가동으로 성장세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올해 북미 시장 성장 바탕에는 지난 4월 가

동된 미국 제2공장이 있다. 봉지면 1개, 용기면 2개 고속라인을 갖추고, 신라면 등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제품의 대량생산까지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대표제품 신라면(봉지) 매출은 전년 대비 36% 늘어난 83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으로 북미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또 육개장사발면과 신라면 블랙(봉지)도 전년 대비 각각 37%와 20%

매출이 올랐다. 농심 관계자는 “이들은 매출 순위 TOP5에 드는 대표 인기제품이다. 제2공장 가동에 힘입어 판매량이 대폭 늘며 법인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북미 지역 성장으로 올해 해외매출(법인+수출)은 전년 대비 9% 상승한 12억4990만 달러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미국 시장에서 일본을 꺾고 1위 역전의 신호를 이뤄낸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한국P&G “겨울에도 머릿결 윤기있게”

팬틴 트리트먼트 3종

한국P&G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 팬틴의 트리트먼트는 최근 ‘30초 헤어 미라클’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하에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고, 기존 제품 라인업의 제품력을 한층 강화해 모발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팬틴 트리트먼트 3종은 △팬틴 폴라겐 극손상 케어 트리트먼트 △팬틴 케라틴 모이스처 케어 트리트먼트 △팬틴 비오틴 볼륨 케어 트리트먼트 등이다. 이 제품들은 77년 역사의 PRO-V 포뮬라에 각각 폴라겐, 케라틴, 비오틴 등의 성분을 더했다.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로부터 효능을 인증받은 프로비타민 B5 성분이 포함된 팬틴의 PRO-V 포뮬라는 영건 모발을 부드럽게 해준다.

팬틴 트리트먼트 3종은 도포 후 기다릴 필요 없이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어 바쁜 학생과 직장인에 적합하다. 또 모발 상태에 따라 원하는 트리트먼트를 선택하여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다.

한국P&G 팬틴 관계자는 “팬틴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녹아있는 새로워진 팬틴 트리트먼트 3종으로 건조한 겨울철에도 윤기 있는 모발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헬기 동원한 과잉 진압에 쌍용차 노조 저항은 정당”

대법 “불법 집회·시위라 해도  
과잉 진압 정당화될 수 없어”  
10억원대 배상금 원심 파기

정리 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 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다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대규모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자 경찰은 헬기와 기동기를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각각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하면서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사측은 이번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심까지 노조가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전국 ‘칼바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거리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대법, 한동훈 미행한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접근금지 불복 항고 최종 기각  
‘독직폭행’ 정진웅은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

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해 수행비서 B 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B 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분안 재판에서 심리·판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 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석주 기자 ssp@**

## 법무부 인권국 공석, 다시 검사로 채워진다

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법무부가 전임 정부의 ‘탈검찰화’ 기초에 따라 비(非)검찰 출신들이 맡았던 인권국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다시 검사를 배치했다. 동시에 여성아동인권과과장과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인권국 과장 네

자리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의 수

사팀장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지냈다.

법무부는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여성아동인권과과장 인사는 검사를 파견한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과 달리 외부 변호사 공모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세무사시험 ‘채점기준표’ 첫 공개 법원, 공단에 “7일 내로 제출하라”

“신청자 위해 작성된 것 포함”  
재판부, 증거보전 신청 인용  
답안지 일체 사본 제출 명령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으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에 부쳤는데 법원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세무사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세무사 시험 수험생 20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전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단은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수험생들이 작성해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답안지 일체’ 사본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은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을 썼다. 세무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과거 5년 평균 과락률 38.5%)보다 높았고, 문제 출제 오류를 포함해 출제자의 적정성, 채점 부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고용노동부·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문제를 재제점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법학 1부가 제외되면서 반발을 샀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들은 출고 해당 문제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비공개”를 고수했다. 공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에 부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팽팽하게 맞섰던 수험생들과 공단의 대립은 법원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문서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신청자를 위해 작성된 것이 포함돼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조희연 “고졸 반도체 인력 4050명 양성”

특성화·마이스터고 3000명 육성  
‘AI 융합 진로직업교육원’도 설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31년까지 고졸 반도체 인력 405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간 거점학교 6곳을 지정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대학과도 협력한다.

조 교육감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2021년 약 17만 7000명에서 10년 후 2031년 약 30만 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년간 발생하는 전체 고졸 추가 수요 3만 4000명 가운데 4050명을 2031년까지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2023년도 100명 △2024년도 200명 △2025년도 300명 △2026~2031년 매년 400명 등 총 3000명을 양성한다. 또 ‘AI(인공지능) 융합 진로직업교육원’을 설립해 2025년부터 7년간 이곳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105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반도체, AI 등 4차 산업 분야 진로와 직업을 윈스톱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반도체 기술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미래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교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거점학교도 지정한다. 거점학교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 반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과 개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내년 부터 매년 2개교씩 총 6개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檢, 조력자 4명 구속영장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조력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이날 진행됐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10억 원 이상 범죄수익을 수수, D 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수출 경쟁력 UP”... 무보, 中企 금융지원 늘린다

## 무보 'ESG 경영대상' 대한경영학회 '공공부문' 선정

### 대출 연대보증 1년에서 3년으로 반도체 中企엔 '한도 1.5배' 우대 서비스 수출기업도 신용보증 가능



이인호(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4월 2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이차전지 제조장비 수출기업 엠플러스를 방문해 영업 현황과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경쟁력에 중심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국내 기업이 국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무보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무보는 한번 발급으로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한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했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1년 단위로 재심사가 필요했다.

중기 수출신용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

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 대상은 무보 신용

등급 D등급 이상의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다.

무역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성장

금융 제도도 운용한다.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한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선정 기업, 수출실적 백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 기업이다. 수출실적 증명의 어려움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되었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는 반도체 기자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원자재 수입 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수입보험 상품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반도체 중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우대지침을 통해 최근 3년 내 반도체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나, 향후 납품이 예정된 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이외에도 무보는 지난해 3만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수준인 66조6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유동성 확보를 도왔다. 특히 수출 초보 기업의 안전한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기준 2580개 기업에 우대지원을 진행했다. 또 596건의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ESG 경영을 필수로 삼아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ESG 경영대상을 받는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보는 지난달 18일 대한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ESG 경영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7월 ESG 경영 비전을 수립한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무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무역·투자·금융 파트너’는 ESG 경영비전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이 ESG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청년 교육 활성화 등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문화를 통한 ESG 경영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보는 ESG 경영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착한 기업’을 넘어서 미래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게임체인저 역할인 셈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을 필두로 ESG를 자국 경제에 유리한 통상환경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는 필수다.

EU의 공급망 실사제도 입법추진 등 중소중견기업 또한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슬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환경, 인권 현황 실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EU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 무보는 ESG 경영 도입이 미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엔 신한은행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제도와 관련해 수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보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ESG 실사 대응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신한은행은 ESG 공급망 모의평가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력을 강화한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 이차전지 기업들엔 18억弗... 미래 먹거리 지원 강화

이차전지가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억 달러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국내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프로젝트에 올해 누적 17억7000만 달러의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 중이다.

무보는 11월 솔루션점단소재가 캐나다에 건설하는 북미 최초 전지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도 1억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해당 공장의 솔루션점단소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연간 전기차 약 54만 대에 활용할 수 있는 전지박을 만들어 북미 주요 이차전지 완제품 공장에 48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다.

6월에는 SK온이 헝가리에 건설하는 이차전지 제3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7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신설될 공장에

서는 2024년부터 연간 전기차 43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이차전지가 생산된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등 강도 높은 전기차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차전지 수출의 전략적·지리적 요충지로 평가 받는 유럽시장에서 K-이차전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보는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이차전지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도 7억1000만 달러를 지원해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신흥 해외시장에서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도록 지원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기차-이차전지 기업과 관련 핵심소재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www.amaranth10.com | 대표번호 1688-5000

##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Amaranth 10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Amaranth 10 더 알아보기



DOUZONE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95호(2022년10월 28일~2023년10월 27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됩니다

 KB증권

# “디즈니 백년대계, 아시아시 대표 파트너”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2’ 싱가포르서 열려

루크 강 아태 총괄사장 “뽀 타깃 신작 흥행·호평 두 토끼 잡아”  
최민식 주연 ‘카지노’·강풀 웹툰 원작 ‘무빙’ 등에 기대감 밝혀

“오늘 이 자리에서 디즈니 향후 백년대계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아시아인)이 우리의 대표 파트너입니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컴퍼니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사장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2’에 참석해 아시아 콘텐츠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400여 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인 이날 행사에서 디즈니는 2023년 공개할 50여 편의 신작을 줄줄이 소개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루크 강 총괄사장은 “올해 아태지역에서 OTT 플랫폼 디즈니+와 핫스타를 통해 45편 이상의 아시아 타깃 신작을 선보여 흥행과 호평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 “이 지역의 라인업이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 특수성이 필요한 장르에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마우스’, ‘사운드트랙 #1’, ‘인더숲: 우정여행’ 등 한국 콘텐츠 세 편을 예로 든 루크 강은 “한국 시리즈는 신규 관객의 유

입을 끌어내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서 “세 작품은 공개 첫 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 톱3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또 “‘올드보이’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배우 최민식이 주연한 ‘카지노’와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의 최강 테트폴 콘텐츠 ‘무빙’이 많이 기대된다”면서 “이 작품들과 함께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주도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대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블의 미공개 신작 개봉일이 알려졌다.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 마니아’는 2023년 2월 17일 공개일을 확정하고 내년 마블 시리즈의 포문을 연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3’는 5월, 박서준이 출연하는 ‘더 마블스’는 7월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루이스 데스포 지도 마블 스튜디오 공동사장은 마블 시리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빌런 캐릭터 ‘강’(Kang)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리즈 ‘로키’에 등장했고 ‘엔트맨: 퀴텀마니아’와 ‘로키2’, ‘어벤져스: 캄 다이너스티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2’에 참석한 루크 강 월트디즈니컴퍼니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이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함께 등장해 개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지역

에서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마블 시리즈는 “영화와 오리지널 시리즈를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서극장 개봉작과 자사 OTT 플랫폼 디즈니+를 교차하며 작품을 선보이는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디즈니 신작 실사 영화도 모습을 드러냈다.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연을 맡으며 주목받았던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 트레일러가 최초로 공개됐다. 할리 베일리가 수중에서 부드럽게 유영하며 유려한 목소리를 뽐내는 뮤지컬

시퀀스가 공개돼 취재진의 함성과 박수를 끌어냈다.

17세 아시아 주인공의 모험과 성장을 다룬 예정인 디즈니의 62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위시’도 2023년 공개된다. 2024년에는 ‘백설공주’ 실사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화려하게 데뷔한 레이철 제글러가 주연을 맡는다. 티몬과 폴바가 활약하는 ‘무파사: 라이온킹’은 2024년 7월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싱가포르=박꽃 기자 pgot@

해양교통안전공단 새 이사장에  
김준석 前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신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김준석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해수부는 1일자로 해양교통안전공단 제3대 이사장에 김준석 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준석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김준석 신임 이사장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보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카디프대에서 해상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sqgood@

바디프랜드 공동대표에  
김흥석 준법지원 부사장

바디프랜드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김흥석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9월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으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김 부사장은 현 총괄부회장이자 지성규 대표이사사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를 맡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관리자(CRO) 겸 최고컴플라이언스관리자(CCO)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백신 국산화’ 故 박만훈 SK바사 부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국내 바이오산업 기반·백신 R&D 역량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국내 백신 연구개발 분야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백신 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진 고(故) 박만훈(사진)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이 국민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국내 보건산업 분야 성과를 결산하는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박만훈 부회장이 대한민국 보건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했다고 30일 밝혔다. 훈장은 故 박만훈 부회장의 부인인 이미혜 여사가 대리 수훈했다. 국민훈장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보건기술 발전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뛰어난 성

과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중 최고 훈격이다. 고 박만훈 부회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연구개발(R&D)과 생산기반 구축을 주도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기반과 백신 연구개발(R&D)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세포배양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개발과 국산화에 앞장서 백신주권 확립 및 글로벌 공중보건 수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만훈 부회장은 2008년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바이오실장, 2014년 생명과학연구소장, 2015년 SK케미칼 제약바이오 부문 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거쳐 2018년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을 역임하며 일생을 바이오·백신 연구개발에 헌신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포니정재단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60명에 장학증서



포니정재단은 28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2022-2023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 포니정재단

2007년 이후 누적 920명 혜택

포니정재단은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호찌민 국립대 학생 총 60명을 ‘2022-2023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하노이 국립대 부총장과 호찌민 국립대 부총장, 학교 장학생 30명, 교수진 10

여 명이 참석했다. 포니정재단은 장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니정재단은 지난 2007년 베트남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920명의 베트남 장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제16회 동서문학상 시상식



동서식품은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격년으로 열리는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 제16회 동서문학상 대상작에는 김은혜(오른쪽) 씨의 소설 ‘두 번째 엄마’가 선정됐다. 부모에 대한 딸의 복합적인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사진제공 동서식품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정보 △고용식품의약품안전처 최관병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측·전기평가실장 윤영식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임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이명로
- ◆GS그룹 ·(주)GS ◇부사장 승진 △이태형 재무팀장(CFO) 겸 PM팀장 ◇상무 신규 선임 △허태홍 GS Futures 대표 ·GS에너지 ◇상무 신규 선임 △이승훈 수소/신사업개발본부장 △이승엽 전력신사업본부장 ◇전임 △김기환 사업전략본부장 전무 △최병민 청도리동화공 총경리 전무 ·GS칼텍스 ◇부사장 승진 △김창수 M&M본부장 ◇전무 승진 △전선규 Chemical&Lube전략본부장 △최우진 전략기획본부장 ◇상무 신규 선임 △김학민 생산운영본부장 △김기웅 대외협력본부장 △도현수 New Energy본부장 △조도현 M&M기획본부장 ·GS리테일 ◇전무 승진 △정영태 인사총무본부장 △김진석 흡소핑BU 흡소핑사업본부장 ◇상무 신규 선임 △신단비 편의점사업부 6부문장 △홍성준 MD본부 HMR본부장 △강선화

- 플랫폼BU 디지털마케팅본부장 △김은정 흡소핑BU 마케팅본부장 ·GS글로벌 ◇전무 승진 △김상현 기획·신사업본부장 ◇상무 신규 선임 △박준석 산업재사업부장 ·GS엔텍 ◇전임 △정용환 생산본부장 상무 ·GS E&R ◇상무 신규 선임 △김근일 경영지원본부장 △정재훈 DX실장 ·GS동해전력 ◇대표이사 전무 승진 △임철현 ◇상무 신규 선임 △하창의 경영관리본부장 ·GS건설 ◇상무 신규 선임 △홍순환 플랜트영업·계약담당 △허진홍 투자개발사업 그룹장 △박성만 환경사업담당 △김옥수 HR그룹장 △한태희 지베스코자산운용 대표이사 △온창운 GPC Corp. 대표이사
- ◆현대해상 ◇부문장 전보 △CPC전략부문장 이권도 △AM영업부문장 한정근 △개인영업부문장 박종필 △인사총무지원부문장 진한승 ◇본부장 전보 △마케팅기획본부장 유원식 △장기상품본부장 박재관 △제휴영업본부장 임영수 △강남지역본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도희 △경인지역본부장 박제원 △개인마케팅본부장 김한민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구성모 △중부지역본부장 이상억 △자동차보상본부장 임진주 △수도권대인보상본부장 이상훈 △법인영업본부장 정승진 △기업영업3본부

- 장 윤의영 △기업마케팅본부장 류재환 △기업영업1본부장 최욱 △일반보험본부장 박창수
- ◆DB금융투자 ◇임원 승진(상무) △1지역본부장 김태수 △종합금융본부장 서형민 △감사실장 김찬구 △금융연구소 김덕현 ◇보임 △WM사업부장(상무) 이병진 △고객지원실장(상무) 장화탁 △WM전략본부장 최성호 △디지털영업본부장 도형호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고객자산운용센터장 하윤호 △WM지원팀장 원준호 △산입분석2팀장 유경하 △Wrap 운용팀장 고희형 ◇전보 △금융연구소(부사장) 강석운 △S&T사업부장(상무) 강성욱 △2지역본부장 허성준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성수 △Trading본부장 권봉철 △WM전략팀장 민경준 △산입분석1팀장 권성일 △기업금융1팀장 김용하
- ◆DB저축은행 ◇임원 승진(부사장) △기업금융본부장 고진곤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표이사 유세종
- ◆DB CNS △대표이사 이대진
- ◆한화투자증권 ◇실장 전보 △소비자보호실 이재만 △센터장 선임 △HFC중부센터 권인영 △HFC호남센터 강도현 ◇센터장 전보 △

- HFC강북센터 이종선 △HFC경북센터 박상식 △HFC충청센터 정만수 ◇팀장 선임 △AI팀 최인준 △IB기획팀 최주리 △기업금융3팀 장호식 △랩운용팀 김중훈 ◇팀장 전보 △영업지원팀 오미란 △인재관리팀 김수연
- ◆대보그룹 ·대보정보통신 ◇부사장 △최재훈 ◇상무부 △이형재 △이성진 △임주환 △황지환 △유도상 ·대보건설 ◇전무 △이동우 ◇상무부 △진상균 △조영찬 △이윤석 △이병복 △김영관 ·대보유통 ◇상무부 △최영우 ·대보그룹 ◇전무 △정승민
- ◆태영그룹 ·티와이홀딩스 ◇전무 승진 △양윤석 △황선호 ◇상무부 승진 △송용호 ·태영건설 ◇부사장 승진 △이승모 ◇전무 승진 △안치열 ◇상무 승진 △이현석 ◇상무부 승진 △김영수 △김인섭 △백두성 △이봉재 △임기형 △정광섭 △조현민 ·에코비트 ◇전무 승진 △이혜리 △정세형 ◇상무 승진 △김수미 ◇상무부 승진 △신준식 △윤상병 △주승환
- ◆대우위니아그룹 ·대우에이텍 ◇전무 김현태 △상무 범행택 ·대우에이피 △상무 김영남 ·대우홀딩스 △상무 최광욱 ·대우동베르 조합 △상무 장관희 ·대우글로벌 △상무부 최재민

## 부음

- ▲홍정순 씨 별세, 박승윤 씨 부인상, 박원영(Boranet 미국 본사 이사)·남영·준식(한국경제TV 광고마케팅2부서) 씨 모친상, 김승림(위드컨설팅그룹 대표) 씨 장모상, 김우경·라경화 씨 시모상 =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전 5시, 02-2227-7500
- ▲조연찬(전 ㈜한창 전무) 씨 별세, 최은주 씨 남편상, 조재영(MBC 사회팀 차장)·재운(삼성전자 사업지원TF 근무) 씨 부친상, 김재경(MBC 정치팀 차장) 씨 장인상 = 30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2일 낮 12시, 02-3010-2000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업황이 개선되기 위한 전제 조건의 키워드는 '완화'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야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고,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 사이클로 전환되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생산 차질과 공급난 등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전기전자 업종의 2023년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자. 거시 환경이 악화되면서 IT 세트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3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은 -12%, TV는 -3%, 가전(미국)은 -9% 역 성장을 기록했고, 역성장 폭이 확대됐다. 반면에 전장 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가 완화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수요 기반이 가장 취약하다. 전쟁 영향에다가 에너지 위기가 더해진 결과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건전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반기에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업황이 개선되기 위한 전제 조건의 키워드는 '완화'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야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고,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 사이클로 전환되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생산 차질과 공급난 등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전략을 마련하거나 미국 거점을 확대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

경기 침체에 성장이 희소하다 보니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 이차전지가 흔들림 없이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부상하고, 폴더블폰이 대중화를 시도하며, XR 기기 및 로봇이 태동하고, OLED는 QD-OLED를 포함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최근 10월까지 16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다. 다만, IT 세트 중 침체 기간이 가장 길고, 침체 폭이 가장 큰 만큼 선제적인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9% 역성장한 이후 내년에는 3%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폭스콘 정저우 사태에서 보듯이 생산 기지 재편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애플은 내년 인도 생산량을 150% 늘리고, 삼성전

자는 베트남 생산 비중을 40%대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더블폰이 침체된 시장의 유일한 희망이다. 폴더블폰 시장은 내년 65% 성장한 2580만 대를 비롯해 2025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내년 1800만 대를 출시하며 7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대중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두께와 무게를 더욱 줄여야 하고, 내구성을 강화하며, 화면 주름을 최소화해야 한다. 카메라 성능을 갤럭시 S만큼 높일 필요가 있고, 방열 이슈를 개선해야 한다.

TV는 팬데믹 특수 이후 수요 절벽을 겪고 있고, 재고 건전화가 관건이다. 2년 연속 5%씩 역성장한 후 내년에는 1% 성장에 예상되지만, 판가 하락을 감안하면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는 상당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OLED TV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79% 성장한 653만 대의 화려한 성적표를 뒤로하고, 올해는 680만 대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OLED TV는 유럽 판매 비중이 높아 유럽 침체 영향이 더욱 크고,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라 LCD TV와 가격 격차가 확대된 점이 부정적이다.

전기차는 에너지 위기마저 넘어서는 모습이다. 10월까지 판매량은 67% 증가한 802만 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0%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침투율이 12%로 상승했다. 마침내 미국이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BYD가 약진하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부상했고, 중국 외 시장에서 현대차·기아가 2위에 도전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올해 51%, 내년 41% 성장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할 전망이다. 46파이 원형전지, NMx와 수정 LFP 간 경쟁, 셀투팩·셀투채시(Cell to Pack·Chassis) 등 신기술의 리더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대 이슈인 IRA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만 주도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일 것이다. 합작법인을 통해 북미 제조 거점을 넓혀갈 것이고, 부품 및 소재의 동반 현지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

CEO 칼럼



최소현  
파섹션 대표

한 해의 끝 지점이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를 느껴 난생처음 혼자서 긴 여행을 감행했다. 출장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 오래 자리를 비우는 건 웬만한 자심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은 11박 13일의 북유럽 여행 중 마지막 도시인 헬싱키로 향하는 기차 안이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나의 경우 종종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에 자발적 고립을 통해서라도 여백을 만들어야 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한다는 김영하 작가의 책 '여행의 이유'도 떠올랐다.

해가 7시간도 채 떠 있지 않은 추운 겨울에 북유럽까지 오게 된 까닭은 이렇하다.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 익숙함보다 낯선 경험, 외부와의 관계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실마

리 찾기가 그 이유다. 꽤 오래전부터 디자인이나 라이프스타일에 관련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도시들은 우리의 공부 대상이 되어왔다. 일단 떠나야겠다고 작정하고 나니 눈과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체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목적성이 분명한 출장도, 영감을 얻기 위한 인사이트 트립도, 가족 여행도 아니라서 그랬는지 '그래서 왜, 어디로, 다시 왜'를 분명히 하는 데 애를 먹었다. 눈에 밝히는 것들이 결정을 자꾸만 반복하게 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데 그 여정은 익숙하지만도 낯설지만도 않은 순간들의 합이다. 코로나 이후 외부와의 관계보다 자신에게 몰입하고 스스로 마음을 챙기는 현상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한때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인간 본성으로의 회귀'나 '인간다움의 존중'이다.

그러나 복잡한 일상은 짧은 호흡의 '단타력'을 단련시킬 뿐 온갖 번뇌를 비우고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는 마음속 그림판의 '전체 지우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비껴가게 된다. 몸의

여행의 이유

디톡스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도 디톡스가 필요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영덩이의 힘"으로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을 제일 잘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잘 살아갈지 나에게 질문을 던지려 여행을 떠난다"라는 나의 말에, 주변 친구들은 "나도 열심히 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계속 똑같은 안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 모두 '열심병'을 자병으로 키워 온 이들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낯설게 하기'의 유효성을 알고 있다. 삶의 여정 중 잠시 멈추고 깨끗한 도화지를 준비하는 데에도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다. 익숙함은 계속 덧칠만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지만 완결은 없었고, 고장 난 것 같았던 시간을 극복하느라 무척 애썼던 2022년이었으므로 누구에게든 그 고단한 시간을 치유하겠다는 결심이 간절해 보인다.

며칠을 지내고 보니 '자연과 인간,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나의 밖과 안에 대한 균형 잡기'가 매일의 생각에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내내 흐리고 어두운 하늘은 생각의 깊이

를 더했고, 해 지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자로 짧게 머무른 며칠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실천이 실생활에 디테일하게 녹아 있어, 내가 살자고 시작한 여행이 자연스럽게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을 그려보게 만들었다.

여행은 끝으로 갈수록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좀 다르다.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모두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알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행 중에 찾은 단초들로 다시 맞이할 일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여행이 물론 소중하지만 온전히 나의 중심을 찾는 혼자 여행은 필요하다. 많은 관광 거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을 끄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오롯이 여러분만의 여행을 응원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스즈키 도시후미(鈴木敏文) 명인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말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데 몰두하라."

'불황 극복의 대가'라 불리는 일본의 세븐일레븐재팬 회장 겸 CEO다. 불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든 경영자인 그의 성공 전략 '스즈키 도시후미 1만 번의 도전'은 혁신 경영의 단골 사례로 꼽힌다. 그의 성공 철학은 '변화에 도전하라'다. 변하는 것 자체보다는 '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2~

☆ 고사성어 / 불사이군(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함.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임금을 부당하게 해치고 새로이 왕위에 오른 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기(史記) 전단열전(田單列傳)에 나온다. 연(燕)나라 장수 악의(樂毅)가 제(齊)나라를 쳐들어가 관리 왕축(王黷)에게 연나라 입조(入朝)를 권유하자 그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뜻을 밝힌 말에서 유래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

☆ 시사상식 / 중규직(中規職)  
법적으로는 정규직 신분이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일컫는 말.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다.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 용어가 생겨났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괴물을 지칭하는 망랑(魍魎)에서 유래된 말. '망냥이→망냥이→망나니'로 변했다. 채집/정리: 조서관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강태우 / 산업부

"새로운 건 없어요."  
한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2400억 원짜리 'ASML, 화성 뉴 캠퍼스'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기존 캠퍼스를 확장한 수준일 뿐 새삼스러운 투자는 아니라는 의미였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인텔, 대만 TSMC와 같은 굵직한 글로벌 기업을 고객

'슈퍼乙' 소극적 투자에 아쉬움 달랠 방법

사로 두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모시듯 하는 ASML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니 시작부터 업계에선 기대가 컸다. 하지만 EUV 장비 한 대 값 수준의 투자에 실망감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들어가는 트레이닝 센터, 재처리 센터는 ASML 한국지사가 생겼을 때부터 이미 기존 캠퍼스 및 타 건물을 임대해 존재하고 있어 크게 새로운 투자는 아니다"며 "미국, 대만 등에 하는 투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CS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 반

도체 산업이 크려면 결국 ASML의 장비 생산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ASML은 자사의 아시아 글로벌 지원 센터가 있는 대만에 장비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 추가 등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에도 장비 연구·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마냥 국내에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대만에 있는 데다 대만과 미국 정부가 나서 자국 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서다. 기업으로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5일 방한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뉴 캠퍼스 기공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협업 관계가 긴밀해지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단지 시직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직'에는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이 담겼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다. 특히 ASML 같은 대형 장비사의 대규모 투자 유치, 국내 산업 육성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 정부, 지자체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인프라 조성 등에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ASML의 '시직'이 실현될 수 있다. burning@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편집국장 박성호	주소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6701	사회경제부 (02)799-2612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44	부동산부 (02)799-2625	팩스 (02)784-1003
미래IT부 (02)799-2665	중소중견부 (02)799-2637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홍춘욱의  
**머니무브** EAR리서치 대표

경제·성장 버팀목, 출산을 높이려면

영화로 보는 세상 - '아마데우스'  
천재를 시샘한 범재(凡才)

# 정부 출산지원금 확대가 단기 효과 내는 지름길

지난 기고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晩婚) 경향이 점차 우세해진 것, 그리고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의 비용이 커진 때문이었다.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기에 해결책이 명확해 보이지만,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 근로시간 단축·육아부담 해소 '유연한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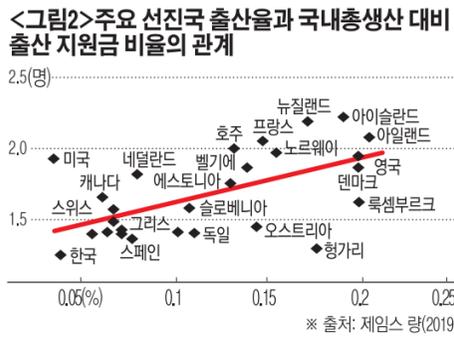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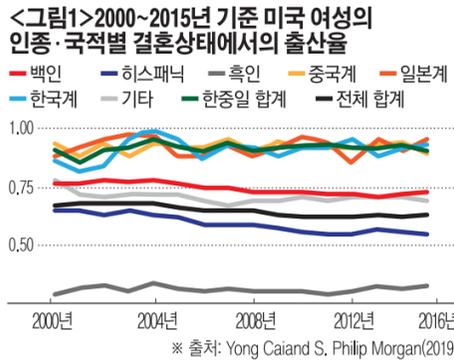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유연한 일자리'가 경제 전체에서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연한 일자리란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시간도 매우 긴 종류의 일자리들이 탐욕스러운 일자리다. 반대로 유연한 일자리는 아이가 아플 때에는 출근 시간을 잠시 미루고 병원에 달려갈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일자리를 뜻한다. 대신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밥 먹듯 초과노동을 하기에 유연한 일자리에 비해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기업 분석가) 일을 했는데,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전형이었다. 언제나 고객의 전화에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출근시간은 새벽 5시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업종에 여성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연하게 느낀다. 왜 그럴까? 다들 짐작하듯, 이른바 주 52시간 노동제가 도입된 데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고비로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탐욕스러운 일자리에서 유연한 일자리로 변모함으로써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워딩 마치를 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2023년 경기 여건이 나빠지며 재택근무를 비롯한 근무 환경 유연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연공서열 중심의 직장 내 위계구조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변화를 늦추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 非婚 출산 확대, 사회문화적 인식이 걸림돌

유연한 일자리의 확대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은 비혼(非婚) 출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체 출산 중 비혼 커플의 비중은 40.2%에 이르며, 프랑스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



덴의 비혼 출산율은 각각 56.7%, 55.2%, 54.6%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단 1.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으로 이민 간 아시아계 여성들도 비혼 출산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림 1>은 2000~2015년 기준,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의 국적별 혼인 상태 출산율을 보여준다. 이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결혼 상태에서만 출산하는 비율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비혼 출산율이 높은 것이다. 한눈에 보더라도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계 여성의 비혼 출산 비율이 거의 0%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생아'라는 경멸적인 호칭부터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집단 내의 노골적인 따돌림이 모두 비혼 출산을 낮추는 요인이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동거 가구의 36.5%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게 현실이다. 동거커플의 28.3%가 정부 지원 혜택에 제한을 겪었고, 응답자의 21.1%가 일상생활 서비스 혜택마저 제한이 있다고 답할 정도이니 말이다.

**학령인구 감소·교육예산 재조정 직접 지원율**  
한국 기업의 문화가 갑자기 변하고 한국 사회의 문

화적 흐름이 일거에 바뀌기는 힘들다. 따라서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의 방법은 장기적인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손쉽고 또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림 2>의 가로 축은 각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출산 지원자금 지출 비중을 나타내며, 세로 축은 각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여준다. 한국은 정부의 출산 지원이 가장 낮으며,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도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터울이 큰 덕분에 둘째는 이제야 중학생이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기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거의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이며, 특히 출산과 임신 기간 중의 지원은 정말 하찮은 것이었다. 말로만 수백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겠지만, 필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교육 예산의 재조정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2017~2022년 교육 예산은 연 7.0%씩 늘어 84조 원을 넘어섰다. 만일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면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1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의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해도 3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가정의 소득 수준별로 지원 혜택을 조정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에는 연 2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돈도 매년 지급 가능하다.

##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 2.1명 선을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세를 걷거나 특별회계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은 총 2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78조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11.4조 원)이나 농어촌구조개선(15.3조 원) 등의 분야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니 지출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된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둘 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중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불경기의 긴긴 겨울밤을 어찌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클래식에 입문해 보면 어떨까?. 일단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 요즘엔 유튜브나 무료 음원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클래식이 어렵다고? 그럼 가장 대중적인 모차르트 영화부터 시작해 보자.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데우스'는 정통 음악 영화의 걸작 중의 걸작이다. 1984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엔 이듬해에 개봉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큰 흥행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엄청난 영화가 나왔다'는 입소문과 귀 밝은 열혈 관객들에 의해 명불허전의 위치에 등극한다.

체코 감독인 밀로스 포먼은 이미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쥔 거장이다. 그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평범한 노력형인 궁중 작곡가 살리에르와 대비시켜, 짧았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음악가의 인생 전반을 보여준다. 원작은 연극 '에쿠우스'로 유명한 피터 셰퍼의 희곡을 각색했다.



희곡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모차르트(탐 헬스)의 음악을 당시의 극장 무대를 완벽히 재현하여 마치 오페라 공연장의 객석에 앉아 있는 느낌을 선사한다. 영화는 미스터리 장르에 명곡들을 버무려 전혀 지루하지 않게 3시간이 지나간다.

살리에르(F. 머레이 에이브러햄)는 신에게 어떻게 퍼붓는다. "어찌하여 저런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겐 그리 훌륭한 재능을 주시고 음악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저에게 평범함을 주시었나요?" 그는 즉흥적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모차르트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다.

아카데미 8개 부문을 휩쓴 '아마데우스'의 남주연상은 모차르트의 탐 헬스 대신에 살리에르의 F. 머레이 에이브러햄에게 돌아갔다. 공교롭게도 절창의 연기를 보여준 두 배우는 이후엔 더 이상 화제가 없었다.

당시 한국에선 살리에르 증후군이 회자되기도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절망의 하소연이었다. 그런데 흑자는 이런 생각도 하였다. "너희는 살리에르만큼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재능 없음을 탓하는가?"

'아마데우스'는 결코 한 번 보고 말 영화는 아니다. 영화를 여러 번 보다보면 새롭게 클래식의 세상에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이 병철 시인의 배달에세이 시간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

시와 문학평론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병철 시인

시간강사의 유쾌하고도 쓸쓸한 배달 일지

▶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지원한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국내 연수' 연구원에 선정됐을 때만 해도 내 앞날이 장밋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종료되면서 월 고정 수입의 60퍼센트가 없어졌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야말로 '잉여 인간'이 된다.

지금의 나를 지키려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구직 사이트를 한참 뒤져보다가 문득 요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가 '핫'하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도서출판 걷는사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51  
서교자이빌 304호

Tel 02 323 2602  
Fax 02 323 2603

e-mail walker2017@naver.com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세상을 바꾸는 K-BAB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 이~만큼 말고 요~만큼만! 요리해요

너무 많이 요리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아파진대요  
엄마, 우리 이제 먹을 만큼만 요리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지구의 건강도 지키고 1년에 약 2조 6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1. 가족 수에 맞춰 계획하기
2. 소량으로 장보기
3. 계량컵 등을 사용하여 정량 지키기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15.7% 줄일 시,  
연간 가계 절감 비용 2조 5백억 원을 20%로 환산  
출처 : 환경부(2012)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